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확충방안

라도삼 이정현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확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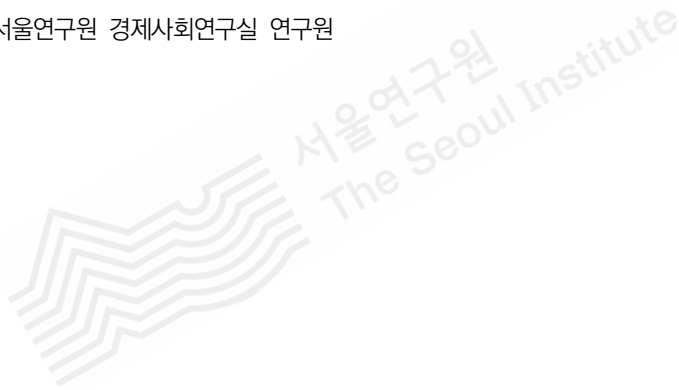


연구책임

라도삼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이정현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서남권 발전을 위해 문화여건을 개선하려면 서남권 아우를 전략적·종합적 사고로 계획해야

문화시설, 시민은 즐기고 예술가는 창조성 발산하는 지역의 상징과 발전의 공간

문화시설은 시민이 문화를 느끼며 즐기는 공간이다. 더불어 예술인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며 새로운 창조성을 발산하는 공간이고, 때론 지역을 상징하고 이미지화하는 공간인 동시에 지역의 예술산업과 관련된 활동이 입지하는 클러스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떤 문화시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지역 이미지가 달라지고, 시민의 생활도 달라진다. 문화시설은 시민의 삶과 예술가의 활동, 지역의 발전·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다.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도서관 82% 차지해...다양한 예술시설·문화활동 어려워

서울의 서남권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뉘었을 때, 한강 이남의 서쪽 지역을 가리키는 권역으로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가나다순) 등이 속한 지역을 말한다. 면적은 서울의 26.8%(162.46 km²)를 차지하며, 인구수는 서울의 31.2%(2020년 기준 2,987,815명)에 달한다.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지역은 문화적 환경이 좋지 않다.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보면 1.56개로 서울시 평균 2.05개에 미치지 못한다. 면적 1km²당 문화시설 수도 2.86개로 서울시 평균(3.25개)보다 적은 실정이다.

더구나 서남권 문화시설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331개로 서남권 전체 문화시설의 71.2%를 차지한다. 이를 포함해 도서관 전체 수는 381개로 서남권 문화시설의 81.9%를 점하고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 예술시설이 부족하다. 공연장은 35개로 서울시 전체의 8.5%에 불과하고, 미술관은 4개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활발한 문화활동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표 1] 서남권 인구/면적당 문화시설 수

	문화시설 수		인구 1만 명당 수		면적 1km ² 당 수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서울시 전체	1,967	940	2.05	0.98	3.25	1.55
서남권	465	134	1.56	0.45	2.86	0.82
도심권	403	338	7.97	6.68	7.23	6.06
동북권	496	188	1.68	0.64	2.90	1.10
서북권	229	94	2.00	0.82	3.22	1.32
동남권	374	186	1.87	0.93	2.58	1.28

자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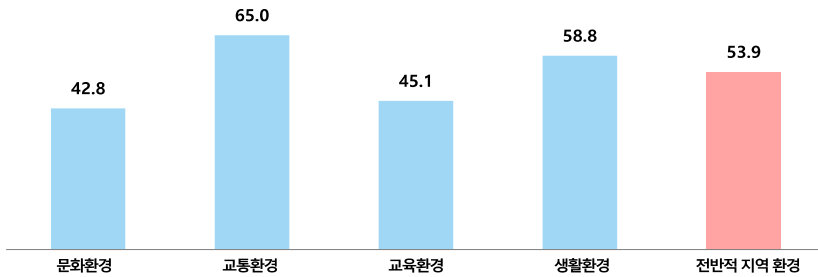
지역성 반영된 문화시설 부족, 클러스터 형성 되지 않아...전략적 개선 노력 필요

더구나 서남권에는 지역성과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도 부족하다. 공업단지로서 역사를 보여주는 시설은 <G밸리산업박물관>밖에 없고, 이주민의 역사와 문화활동, 지역 내 인구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와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도 없다. 더구나 각 문화시설은 지역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고, 문래창작촌 등 예술인이 집중한 지역에는 시설이 부족하며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은 클러스터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단기적 차원의 문제 대응보다는 장기적·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화환경 만족도 43%로 저조한 서남권 주민, 문화환경 개선 비전도 낮게 평가해

서남권 주민의 문화활동은 다른 권역과 비슷하다. 차이가 있다면 영화관람이 다소 높게 나오고, 예술교육 등 기초적인 예술활동이 다소 낮게 나왔을 뿐이다. 영화관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많고, 예술시설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이 느끼는 문화환경은 좋지 않다.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환경 만족도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2.8%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교통시설 만족도(65.0%), 생활환경 만족도(58.8%), 전반적인 지역환경 만족도(53.9%)보다 낮은 수준이다. 45.1%

가 나온 교육환경 만족도와 유사할 뿐이다.



[그림 1] 분야별 및 전반적 지역환경 평가(동의응답 비율)-서남권 평균

게다가 문제는 문화환경 개선에 대한 비전이다. ‘문화적 발전 가능성’이나 ‘주민의 문화활동 여건 개선 노력’, ‘역사성’, ‘고유성’, ‘유무형의 자원’, ‘예술창작 활동’ 등에서 다른 권역과 비교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남권 주민은 지역의 문화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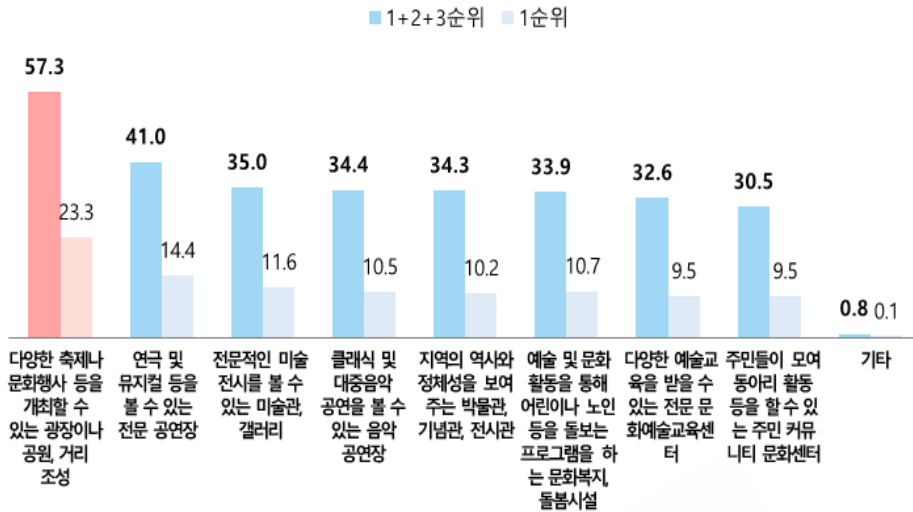
[표 2] 거주하는 자치구의 향후 문화 발전 여건과 의지(동의응답 비율)-권역 간 비교

권역	문화적 발전 가능성 있음	주민의 문화활동 여건 개선 노력	역사가 깊다	고유한 정체성 있다	자랑스럽다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 있음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발
서남권	54.2	41.9	41.1	36.4	35.6	34.8	31.7
도심권	57.1	52.9	57.1	54.3	48.6	52.9	48.6
동북권	55.5	46.4	48.2	43.6	39.1	42.7	29.1
서북권	67.3	55.5	47.3	53.6	47.3	50.9	41.8
동남권	72.7	57.3	55.5	48.2	54.5	60.0	50.9

시민은 광장·공원·거리 같은 일상공간 원하는데 자치구는 ‘도서관’ 계획에 머물러

시민이 가장 원하는 문화시설은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광장, 공원, 거리’ 같은 일상공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은 ‘연극 및 뮤지컬을 볼 수 있는 공연장’, ‘전문적인 미술전시를 볼 수 있는 미술관 및 갤러리’, ‘클래식 및 대중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전문공연장’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문화공간과 예술시설이 우선 필요

한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림 2] 서남권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1+2+3순위)-서남권 평균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대부분 도서관이거나 ‘청소년 시설’, ‘커뮤니티 시설’이었다. 청년인구가 많은 관악구가 그나마 청년문화국을 설치하고 ‘청년 문화존’, ‘신림동 쓰리룸’ 등 청년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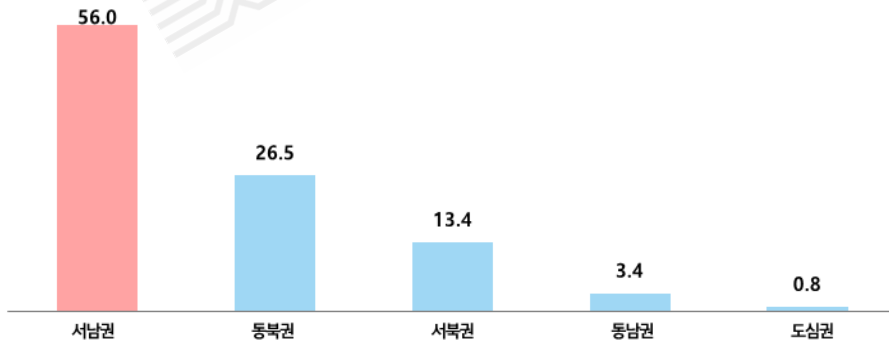
다른 한편, 다양한 예술가가 활동하고 있는 문래창작촌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문래동 작가 중 68.5%가 ‘예술가의 이탈’에 동의하였고, ‘철공소 이탈’에 86.3%, ‘술집, 카페 등 상업적 공간 증가’에 96%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예술가들은 ‘철공소와 예술가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발전’을 가장 원했고, 필요한 시설로는 ‘전시장 및 공연장’, ‘화장실/가로등 등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 순이었다.

[표 3] 문래동 발전에 필요한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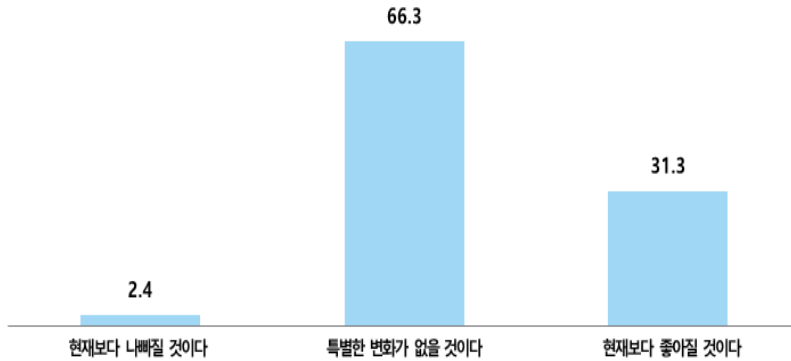
구분	1순위		1+2+3순위	
	사례 수(명)	비율(%)	비율(명)	사례 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및 공연장	43	35.0	71	19.6
화장실/가로등 등 생활편의시설	24	19.5	55	15.2
예술가들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13	10.6	51	14.0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실	11	8.9	38	10.5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	7	5.7	21	5.8
예술인을 위한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7	5.7	32	8.8
주차장	7	5.7	25	6.9
작품 혹은 굿즈 등의 2차 창작물 판매공간	5	4.1	50	13.8
지역 안내센터	4	3.3	16	4.4
기타	2	1.6	4	1.1
합계	123	100	363	100.0

문화여건 개선 위해 시민·예술·지역·미래 수요 아우르는 종합적 계획 필요해

서울시는 서남권의 문화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서서울미술관>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다. 서남권 주민 스스로도 ‘서남권의 문화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답하고 있고,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권역 - 서남권 평균



[그림 4] 서남권 문화환경 변화 기대감 - 서남권 평균

서남권의 문화환경을 개선하려면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각 자치구 단위 확충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필요한 시설을 추계한 다음, 전략적 검토하에 시설을 배치·확충하여 문화적인 지역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확충 대상시설은 단기적 수요가 아닌 시민·예술·지역·미래 수요 등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서남권은 문화시설의 절대수가 부족한 동시에 예술 시설, 지역 고유성에 대응하는 시설, 디지털 산업지역으로서 현재 여건을 고려한 미래의 문화시설이 모두 부족하다. 단기적 차원에서 대응하면 그 수는 늘겠지만, 지역 전반의 여건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종합검토하에 문화환경을 개선해야

서울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문화시설은 단지 서남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서남권을 살펴보았지만, 동북권과 서북권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 여러 여건 변화에 따라 서울시에 요구되는 시설도 다양하다. 이에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현재 여건을 검토하고, 미래 수요를 발굴하며, 종합적인 측면에서 각 권역의 특성화 및 문화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종합적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시설은 단지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가와 다양한 창조인력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지역과 시민이 호흡하는 공간이다. 그런 만큼 단기가 아닌 장기, 현재가 아닌 미래를 고려한 종합적 계획하에 관련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4
02 문화시설 개념과 확충전략	6
1_문화시설의 개념과 기준	6
2_문화시설 설치기준과 확충전략	11
03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특성	20
1_서남권 문화시설 분포현황	20
2_서남권 문화시설 분포특성	26
04 서남권 주민과 문래동 지역 문화욕구	32
1_서남권 시민 문화욕구	32
2_문래동 지역 문화욕구	53
05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계획과 방향	64
1_서남권 문화시설 확충계획	64
2_서남권 문화시설 확충전략	74
06 종합 및 결론	84
1_연구결과 종합	84
2_결론 및 제언	85
참고문헌	87

부록 ————— 91

Abstract ————— 113



표 목차

[표 1-1] 서울 서남권 구성 및 면적, 인구 수 현황	2
[표 2-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상세 분류	7
[표 2-2] 문화시설 재분류	8
[표 2-3] 시대별 문화시설 확충방향	13
[표 2-4] 문화기반시설 공급(배치) 전략(문화관광연구원 안)	15
[표 2-5]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기능 조정 적용방안	16
[표 3-1] 서남권 문화시설 총수 및 서울 내 분포비율	21
[표 3-2] 서남권 인구 당 면적 당 문화시설 수	22
[표 3-3] 서남권 자치구별 문화시설 분포현황	23
[표 3-4] 인구당 및 면적당 서남권 자치구별 문화시설 분포현황	24
[표 3-5] 서남권 예술시설 분포현황 - 서울시 대비 분포 비율	26
[표 3-6] 서남권 문화특화지역 현황	30
[표 4-1] 조사 개요	32
[표 4-2] 조사 내용	33
[표 4-3] 응답자 특성	34
[표 4-4] 주로 하는 문화활동(1+2+3순위) - 서남권 상위 7개	35
[표 4-5] 거주하는 자치구 내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 권역 간 비교	35
[표 4-6] 거주하는 자치구 내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36
[표 4-7] 거주하는 자치구 만족도 - 권역 간 비교	37
[표 4-8] 거주하는 자치구 지역 환경 만족도 - 권역 간 비교	38
[표 4-9] 삶의 질 만족도 - 권역 간 비교	39
[표 4-10] 삶의 질 만족도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40
[표 4-11]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환경 인지 정도 - 권역 간 비교	41

[표 4-12]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환경 인지 정도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41
[표 4-13]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 - 권역 간 비교	42
[표 4-14]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43
[표 4-15] 거주하는 권역 문화인프라 충분 정도 평가 - 권역 간 비교	44
[표 4-16] 거주하는 권역 문화인프라 충분 정도 평가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45
[표 4-17]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권역 간 비교	46
[표 4-18]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46
[표 4-19]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52
[표 4-20] 응답자 구성 - 성별 현황	53
[표 4-21] 응답자 구성 - 연령별 현황	54
[표 4-22] 응답자 구성 - 활동분야 현황	54
[표 4-23] 응답자 구성 - 문래동 내 활동기간	55
[표 4-24] 보유공간 성격	55
[표 4-25] 보유공간 보유형태	56
[표 4-26] 보유공간 운영형태	56
[표 4-27] 보유공간 월임차료	56
[표 4-28] 보유공간 면적	57
[표 4-29] 문래동 내 활동사유	57
[표 4-30] 문래동 환경 만족도	58
[표 4-31] 문래동 입주 후 변화	59
[표 4-32] 최근 나타난 문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동의 정도	59
[표 4-33] 문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미치는 영향	60
[표 4-34]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래동 이탈 의지	60
[표 4-35] 문래동의 발전 방향	60
[표 4-36] 문래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61
[표 4-37] 문래동 발전에 필요한 시설	61
[표 5-1] 제2세종문화회관 층별 용도	65
[표 5-2] 영등포구 마을도서관 조성 계획	69
[표 5-3]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현황	69
[표 5-4] 구로구 문화시설 환경개선 추진 계획	72

[표 5-5] 서울시 및 서남권 자치구 문화시설 확충계획 종합	75
[표 5-6] 영국의 FACT와 독일 ZKM	77
[표 5-7] 서남권 문화인프라 확충 방향	78
[표 5-8] '런던 문화기반시설 육성계획': 7가지 실행계획	80
[표 5-9] 서남권 유희시설 및 활용방안(서남권 문화재단 관계자 제안)	81
[표 5-10]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 관계	82



그림 목차

[그림 1-1] 서울시 각 권역 간 문화적 격차	3
[그림 2-1] 문화기반시설 확충전략(2004 연구 결과)	18
[그림 3-1]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범위	28
[그림 3-2] 동작구 사당동 지역 문화공간 분포도	29
[그림 3-3] 서남권 지역 1인 가구 현황	30
[그림 4-1] 주로 하는 문화활동 - 서남권 평균	34
[그림 4-2] 문화에 대한 태도 - 서남권 평균	36
[그림 4-3] 거주하는 자치구 만족도 - 서남권 평균	37
[그림 4-4] 거주하는 자치구 지역 환경 만족도 - 서남권 평균	38
[그림 4-5] 삶의 질 만족도 - 서남권 평균	39
[그림 4-6]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환경 인지 정도 - 서남권 평균	40
[그림 4-7]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 - 서남권 평균	42
[그림 4-8] 거주하는 권역 문화인프라 충분 정도 평가 - 서남권 평균	44
[그림 4-9]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서남권 평균	45
[그림 4-10]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권역 - 서남권 평균	47
[그림 4-11]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47
[그림 4-12]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권역 - 서남권 평균	48
[그림 4-13]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48
[그림 4-14] 서남권 내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서남권 평균	49
[그림 4-15] 서남권 내 문화환경이 잘 갖춰진 자치구와 낙후된 자치구 - 서남권 평균	49
[그림 4-16] 서남권 내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50
[그림 4-17] 서남권 내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50
[그림 4-18] 서울시 문화환경 변화 기대감 - 서남권 평균	51

[그림 4-19] 서남권 문화환경 변화 기대감 - 서남권 평균	51
[그림 4-20]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 서남권 평균	52
[그림 4-21] 문래동 요식업소 현황(허가연도별)	58
[그림 5-1] 서서울미술관 조감도	64
[그림 5-2]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65
[그림 5-3] 용양봉 전경	66
[그림 5-4] 용양봉 정비계획	66
[그림 5-5] 노량진 6구역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안)	67
[그림 5-6]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안)	73
[그림 5-7]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안	74



01

연구개요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과 목적

서울 서남권은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뉘었을 때, 한강 이남의 서부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가나다 순) 등 총 7개구가 속해 있다. 면적은 162.46km², 인구수는 2,987,815명(2020년 기준)이다. 면적으로는 서울의 26.8%, 인구수로는 31.2%를 차지한다(서울시, 2021; 통계청, 2021).

[표 1-1] 서울 서남권 구성 및 면적, 인구 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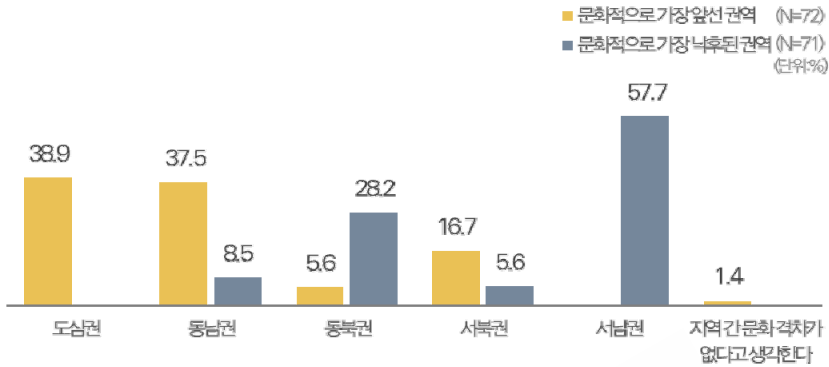
구분	면적(km ²)	인구수(명)
서울시 전체	605.23	9,586,195
서남권	162.46	2,987,815
강서구	41.44	564,854
관악구	29.57	502,641
구로구	20.12	435,442
금천구	13.02	249,419
동작구	16.35	392,772
양천구	17.41	439,068
영등포구	24.55	403,619



*자료: 서울시(2021); 통계청(2021)

경의선과 경부선을 중심으로 발전한 서울 서남권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기반이다. 대부분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공업 중심으로 발달해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 가산디지털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많은 지역이 제조업 및 디지털 관련 산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업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문화

적인 이미지는 취약한 편이다. 실제 2022년 서울연구원이 전문가 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7%가 서울 5대 권역 중 문화적인 면에서 제일 취약한 권역으로 서남권을 지적했다.¹⁾



자료: 라도삼 외(2022): 128

[그림 1-1] 서울시 각 권역 간 문화적 격차

이에 맞춰 서울시는 그간 서남권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금천구에 건립되는 <서서울미술관> 및 영등포구 문래동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아직은 개별 사업단위로 접근할 뿐, 서남권 전체의 문화환경을 고려하며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선7기 새로운 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은 공약실천계획서를 통해 '서남권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 공약은 '아트팩토리 산업문화공간 조성'(2-2-7)과 '서남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조성'(2-2-8) 등으로 되어 있다. '아트팩토리 산업문화공간 조성'은 '영등포 및 구로 등 서남권 일대 빈 공장과 창고를 이용해 특색있는 산업문화공간을 조성해 예술인들에게 제공할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서남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조성'은 '준공업 지역 신규 개발사업지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2개 이상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생활권 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별 부족 생활 SOC 및 문화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문화시설 입지를 도출하고, 개발사업 시 제공되는 공공기여 등을 통해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필요지역에 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¹⁾ 이 조사는 202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진행되었다. 총응답자 수는 75명이었고, 주요한 응답대상은 문화정책 연구 및 기획자, 행정가 등이었다(라도삼 외, 2022: 112~130 참조).

주요한 내용이다.

이 과제는 이런 여건에서 추진되었다. 즉 서남권 전반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현재의 문화시설 현황 및 여건을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직접적인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현재의 시설현황 및 주민수요를 조사하고 각 자치구의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조사하여 앞으로 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현황 및 현안 분석을 축으로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에서 진행한다. 첫째, 전반적인 문화시설 현황 파악이다. 우선 문화시설에 관한 규정을 내리고 해당 규정에 맞춰 현재 서남권에 분포된 문화시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시설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고 서남권 주민의 이용 여건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둘째, 서남권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실태, 문화인프라 만족도와 요구 등을 조사하고자 한다. 시민 및 서남권의 핵심 예술지역인 문래동 창작예술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서남권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서남권 지역의 독특한 문화 현황 조사다. 서남권 지역구성이 갖는 특징과 주요한 문화지역 현황을 조사하여 서남권이 지닌 문화적인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문화시설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내 각 자치구가 수립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문화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조사다. 앞으로 문화시설 확충에 현재 수립 또는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 중요한 만큼, 이를 종합하여 데이터화하고자 하였다.

02

문화시설 개념과 확충전략



- 1_문화시설의 개념과 기준
- 2_문화시설 설치기준과 확충전략

02. 문화시설 개념과 확충전략

1_문화시설의 개념과 기준

1) 문화시설의 개념과 종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제2조 제1항 제3호) 문화시설은 예술 및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²⁾ 법은 이 문화시설 유형으로 7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가. 「공연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지막 사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1. 지역문화활동시설과 2.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등이다(동법 시행령 제2조). 이렇게 보면 문화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복합된 종합시설, 창작공간,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등 총 8가지다.

다른 한편, 이 시행령은 ‘별표’의 형태로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

²⁾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의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데 여기서 제시된 문화시설 분류체계는 법의 그것과 다소 다르다. 여기에는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종합시설 등 총 6가지 시설이 대분류체계로 제시되어 있다. 법에 제시된 ‘문학관’이나 ‘창작공간’은 없고, 시행령 상 제시된 지역문화활동시설 및 문화보급·전수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상이한 방식으로 법에 제시된 8가지 문화시설은 6가지로 조정된다.

[표 2-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시설 상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용
공연시설	공연장	종합공연장	시·도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
		일반공연장	시·군·구 문화예술회관 등 1천 석 미만 300석 이상의 중규모 공연장
		소공연장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	
야외음악당 등	연주·연극·무용 등을 할 수 있는 야외시설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외의 시설		
전시시설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도서시설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체육센터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통국악의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교육시설 및 전수시설	
	전수회관	지방 고유의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교육·전수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	
종합시설	제1호 가목, 나목 또는 다목의 시설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자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

「문화예술진흥법」 외에 문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이다. 생활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일반적인’ 문화시설 외 ‘생활 문화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생활문화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는 시설 등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시설로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 등을 고시하고 있다.³⁾ 이렇게 해서 문화시설은 좀 더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된다. 우선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상의 시설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학관, 창작공간, 지역문화활동시설,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 종합시설 등이 있다. 여기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시한 생활문화시설-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서점-등이 문화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되면 문화시설 유형은 총 10가지다.

그런데 여기에 중복된 시설이 있다. 예컨대 지역문화활동시설과 생활문화시설,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인 창작공간과 문학관이 그렇다. 여기에 대부분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종합시설도 중복된 시설이다. 이에 이를 합해 문화시설을 분류하며 공연시설, 전시시설, 창작시설, 도서시설, 생활문화시설, 문화보급 전수시설 등 총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이 문화시설의 기본적 유형이나 분류 및 수요 체계는 그 필요와 목적에 맞게 재분류된다. 이 점에 대해선 잠시 후에 논의하기로 하겠다.

[표 2-2] 문화시설 재분류

시설 종류	해당 시설
공연시설	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문예회관 등 종합시설 등
전시시설	미술관, 박물관, 화랑, 조각공원
창작시설	문학관, 연습실, 작업실(아틀리에)
도서시설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시설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평생학습관, 자치센터, 지역서점, 영상미디어센터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3) 위임행정규칙,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16호, 2018. 3. 9., 일부개정.

2) 문화시설의 조건과 기준

각 문화시설은 관련된 하위법에 따라 필요한 자기 기준을 갖고 있다. 적정면적이나 운용형태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해당 시설의 건립 기준이 되기도 하고, 법적인 면에서 설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우선 공연시설인 공연장은 ‘공연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공연법」 제2조 제4호),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이때 말하는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다. 단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동법 제2조 제1호).

「공연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⁴⁾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종합계획에는 1. 공연장의 설치목적, 2. 공연 프로그램 운영 계획, 3. 공연장의 재정 확보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동법 제8조).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을 말한다. 유사하게 미술관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2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미술관 발전을 위하여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동법 제9조). 또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 2에 따라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⁵⁾ 이 사전평가

4) 공연연습장이란 공연연습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공연법」 제2조 제5호).

5) 사전평가는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 실시된다. 1월 31일 실시되는 사전평가는 4월 30일까지, 7월 31일에 시행되는 사전평가는 10월 31일까지 종료되도록 실시되며, 평가결과는 평가완료 후 14일 이내 통보된다(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항목에는 1. 설립의 목적 및 필요성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 추진계획 및 운영 계획 3. 운영 조직 및 인력구성계획 4. 부지 및 시설 명세, 5.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수집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은 3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평가의 항목에는 1. 설립목적의 달성도,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3. 자료수집 및 관리 충실성, 4. 전시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실적,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동법 제26조).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서관법」 제3조). 도서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등으로 나뉘고, 설립목적 및 주 이용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된다(동법 제4조). 이 중 지자체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진흥법에 의해 지자체가 설립·운영할 수도, 민간의 운영을 지원할 수도 있다(「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

도서관 발전을 위해 국가는 ‘국가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도서관법」 제11조). 광역지방자치단체 또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또한 각 시도에는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도서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표도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5조). 대표도서관은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 도서관 중 지정해 운영해도 된다. 대표도서관의 역할은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2.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등이다.

「도서관법」은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의무로 공공도서관 설치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에 우선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라는 별도의 법에 근거하여 각 자치구 당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분원을 둘 수 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제8항).

영화관은 법적인 설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하고 있다. 영화관을 설치·경영하려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의 기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로서 서울시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영화상영관 등이다. 또한 광역대표도서관은 시에 1곳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해야 하며, 자치구별 1개씩 지방문화원을 운영해야 한다. 더불어 공연장 설치·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서관위원회’를 두고 ‘대표도서관’을 통해 서울지역 전반의 도서관 발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한 문화시설 관련 사항이다.

2_문화시설 설치기준과 확충전략

1) 문화시설 설치의 흐름과 동향

법적 규정 때문만이 아니라 문화생활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도시 위상 제고 차원에서 정부를 포함해 서울시는 그간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 방향은 시대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각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의 행태가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 및 필요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시대별로 추진된 문화시설 확충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주요한 문화시설 확충전략은 국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행사장 및 필수적인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을 중심으로 국격에 어울리는 문화시설 및 정치적·행정적 시설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이 시기 주요하게 건립된 시설은 국립극장(1973)⁶⁾, 세종문화회관(1978), 국립중앙박

물관(1972), 국립현대미술관(1969) 등이다. 이들 시설은 몇 단계의 보수와 리모델링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도 주요한 문화시설(공연시설 및 전시시설)로 기능한다.

이에 반해 1980년대 문화시설 확충은 전문적인 예술시설을 갖추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이 시기 시설은 예술을 축으로 국가를 상징할 만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시설이 <예술의 전당>이다.

23만 1,000㎡(7만 1,026평)의 부지에 연면적 12만 353㎡(3만 6,407평)로 건립된 <예술의 전당>은 1984년 착공해 1988년 개관되었다.⁷⁾ 또한 이 시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1986)이 개관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 본관(1988)도 개관되었다.

1990년대는 ‘문화복지’의 시대다. 그 어느 때보다 ‘문화의 민주화’⁸⁾에 기초해 생활권 예술서비스 확충에 노력했던 김영삼 정부는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의 집’ 등 기초적인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1994년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제정해 자치구별 ‘지방문화원’ 조성에도 노력한다. 이 시기에 현재에 필요한 문화시설 기반을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확충되기 시작한 시설은 창작공간과 도시상징형 문화시설이다.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확대되었던 창조도시론은 도시의 창의성을 높이는 한편, 상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에 금천예술공장(2009)과 문래예술공장(2010) 등과 같은 창작공간⁹⁾이 조성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2009)와 같은 대규모 상징형 시설이 형성되었다.

2010년대에는 시민주도형 문화시설이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다. 1990년대 확장되었던 ‘문화의 민주화’에 대비되어 시민주도의 문화형성과 공동체 문화확산을 주도했던 ‘문화민주주의’¹⁰⁾는 대규모 예술시설이나 전문적인 문화시설보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는 문화시설을 만들기에 주력한다. ‘마을예술창작소’나 ‘마을미디어센터’,

6) 국립극장이 최초로 설립된 것은 1950년 4월 29일 현 서울시 의회 의사당인 부민관이다. 이 국립극장은 1957년 현 명동예술극장인 명동극장으로 이전했고, 1973년이 되어 현 국립극장인 장충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7) 1988년 개관된 시설은 음악당과 서예관이었다. 이후 예술의 전당은 공사를 거쳐 1993년 완전히 개관된다.

8) ‘문화의 민주화’란 문화가 특정한 집단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고 확산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소외’다. 즉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동일한’ 문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문화의 민주화’ 원리다. 이 원리에 따라 각 지역에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제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9)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시 창작공간은 2022년 12월 현재 총 18곳 조성되어 있다.

10)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곳에 동일한 문화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과 달리, 문화 자체가 민주적으로 형성되도록 힘을 강조한다. 즉, 각 집단이 특정한 문화체계나 대중적인 문화에 왜곡됨이 없이 자신을 표출하고, 문화를 구성하는 주체로 서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다. 이에 따라 문화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자기 문화를 표출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한다. ‘문화의 민주화’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문화민주주의’는 주민이 자신을 표출하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다.

‘생활문화센터’ 등이 그 대표적인 시설이다. 그러나 아직 이 시설들은 법적으로 체계화되었거나 일정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아직은 그 체계가 미약하다. 더구나 주민 스스로의 문화를 증시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조성하는 것보다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한다. 이에 따라 향후 이 시설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갈 것으로 보인다.

[표 2-3] 시대별 문화시설 확충방향

연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확충 방향	대규모 행사장 국가문화시설	예술전문시설	생활문화시설	창작공간 및 도시상징시설	공동체 문화시설
대표 시설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창작공간 DDP	마을예술창작소 마을미디어센터 생활문화센터

이처럼 문화시설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확충할 때는 법적인 기본요건과 더불어 시대적 상황, 주민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무턱대고 확충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시설을 확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시설 계획에는 시대적인 변화와 시민의 요구를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2) 문화시설 설치의 기준

(1) 기준 설정 연구와 정부 정책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시설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시대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이 다르다. 따라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여러 전략이 존재한다.

우선 기본적인-필수적인-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기초적으로 쓰이는 전략은 인구나 면적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정해 필요한 문화시설의 수를 정하는 것이다. 테이즈(Teitz)가 제시한 ‘도시공공시설 입지론’에 따른 것으로(Michael B. Teitz, 1968: 양혜원 외, 2015: 15 재인용), 이 전략은 동일한 규모의 시설을 일정 지역 내 배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법엔 대체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거리최소화 모형’(P-median location model)이다. 하키미(Hakimi, 1964)가 개발한 이 모형은 특정한 시설까지 주민이 이

동하는 총거리를 측정한다(Hakimi, 1968; 양혜원 외, 2015: 16 재인용). 즉 최대한 많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시설의 효용성을 최대화한다는 게 이 모형이다.

두 번째 모형은 ‘한정시간 입지모형’(set covering location model)이다. 이 모형은 ‘서비스의 가치는 최대 허용 거리 내에서는 변하지 않으나 그 거리를 넘어서면 급격히 감소한다’는 가정하에(ReVelle et al., 1971; 양혜원 외, 2015: 17 재인용), 서비스 이용자와 시설 사이의 최대 허용 거리를 설정해 놓고 그 조건을 최대로 만족하는 지점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의 ‘거리최소화 모형’이 가능한 많은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구하였다면, ‘한정시간 입지모형’은 이용가능한 거리-시간을 기준으로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목한다.

세 번째 모형은 ‘최대수요 입지모형’(Maximal covering location model)이다. Church와 ReVelle에 의해 제시된 이 모형은(Toregas, 1974; 양혜원, 2015: 19 재인용)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최대로 해 건립하자는 주장이다. 즉, 시설 이용자 수를 극대화해 문화시설의 효용성을 높이자는 것이 이 모형이다.

이 같은 효용 중심의 입지론에 기반하여 그간 많은 문화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특히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 차원에서 공연장이나 전시시설, 도서관 등 기초적 문화시설 수요 충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한 주요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세훈(2001)은 도서관 및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시설을 기준으로 행정단위 인구 규모와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수를 정하고 현재 시설 수를 파악한 다음 부족율을 계산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문화시설 수를 추정하였다. 이에 반해 이원태(2004)는 지자체 위주의 문화시설 건립이 갖는 문제점, 예컨대 비슷한 시설이 중복되어 건립되거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우선 공급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 공연장 등은 광역단체당 1개, 문화의 집과 같은 생활문화시설은 기초자치단체당 2개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반해 김효정(2014)은 행정구역별 균등한 배치보다는 수요에 따른 배치를 주장했다. 주장의 요체는 기존 문화시설의 이용실태 및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분석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에 적정한 문화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효정은 △문화소비 및 서비스 수요 분석과 △기존 문화 자원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문

화시설 배치 및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통합적 문화시설 관리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이를 반영하여 양혜원 외(2015)는 문화기반시설 공급실태와 주민수요 분석을 기본으로 세부적인 입지기준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제시한 입지기준은 △비서비스권 비율, △지역인구 비율, △청소년계층 비율, △재정의존도 등 4가지다. 그는 이에 기초하여 도서관 등 주요 문화시설의 공급기준을 제시했다(양혜원 외, 2015: 162).

[표 2-4] 문화기반시설 공급(배치) 전략(문화관광연구원 안)

구분	접근성(이동시간)	서비스권역	생활권 위계	공급기준
공공도서관	도보 20분 이내	12.1~15.7km	소 생활권	지역특성(도시/농어촌) 기존 시설 서비스권역 인구수 청소년계층 비율 재정지립도 서비스 수요
생활문화시설	대중교통 30분 이내 ~자가용 30분 이내	25.2~25.9km	중하 생활권	
문예회관	대중교통 30분 이내~자가용 30분 이내	28.4~29.9km	중하 생활권	
박물관	대중교통 30분 이내	25.2~25.9km	중하 생활권	
미술관	~자가용 30분 이내	37.9~39.7km	중하 생활권	

자료: 양혜원 외(2015): 162

이처럼 많은 연구가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 문화시설 확충도를 제시해왔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또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2004년 정부는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문화체육관광부, 2004), 인구 5만 명 당 박물관·미술관을 설치 및 시군구별로 각 1개의 문예회관을 설치를 추진하였다. 2012년에는 ‘공공문화시설 건립·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운영강화에 나선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는 문화시설 건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 및 투자 합리화를 통해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2014년에는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새로운 문화 수요에 대응하여 적절한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현재 지역에 분포된 문화시설의 기능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문화시설을 1차, 2차, 3차 시설로 분류하고 충청남도과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GIS를 활용해 현재 시설의 사각지대를 구한 다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설 기능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기능 조정방안은 유사문화 시설 활용 및 문화시설 기능 강화, 기초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정 등이다.

[표 2-5] 문화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화시설 기능 조정 적용방안

해소 방안	유휴시설 활용 및 문화시설 기능 조정			유휴시설 문화적 리모델링
	1차 소생활권 유사문화공간 활용	2차 중생활권 문화시설 기능 조정	3차 대생활권 문화시설 활용	
대상 시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원,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시설 생활문화센터	농촌형 유휴시설(폐교 등) 도시형 유휴시설(상가 등)
사업 방향	주민문화여가프로그램 제공 소규모 체험시설 및 전시시설 운영 등	기능역할 재정립 특화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수련시설 복합문화시설화 생활문화센터 확충	창작공간, 체험교육공간, 공연전시공간, 도서관, 문화센터 등 용도에 맞춰 개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융성위원회(2014): 83~131 요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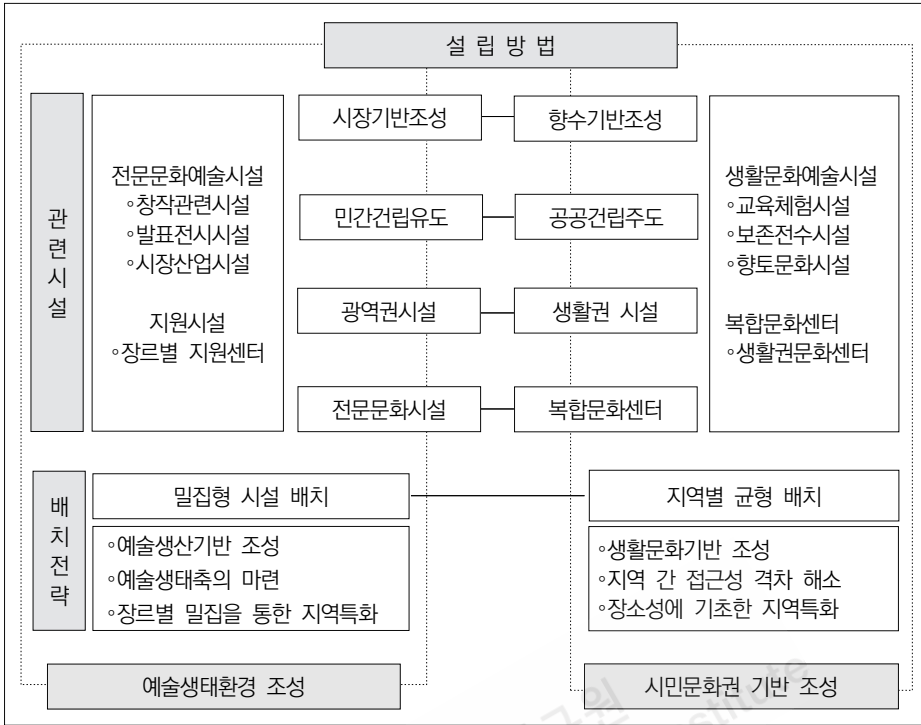
이처럼 현재까지 연구 및 정부 사업은 인구 및 면적을 바탕으로 주요한 문화시설 확충의 기준을 정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각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제시되는 문화시설 종류도 다르고, 각 시설의 기준도 다르다. 여기에는 아직 보편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화시설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공연장이나 전시장,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등으로 그 유형을 제한하고, 특별한 지역성이 요구되는 문화보급 및 전수시설이나 창작공간 등은 제한된 경우에서만 분석대상에 포함해 조사하고자 한다.

(2) 서울시 확충방안 및 연구 동향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시설 확충에 주력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또한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다만 정부와 다른 점이라면 서울을 하나의 생태계로 보고, 인구 및 면적당 시설확보보다 예술생태계 및 시민문화 욕구 충족이라는 관점에서 문화시설을 확충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 주요한 연구와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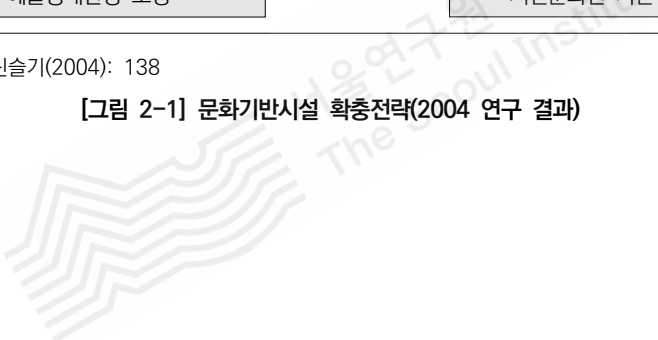
서울에서 첫 번째로 문화시설 확충방안을 제시한 것은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이다(라도삼·신슬기, 2004). 이 연구는 2004년 당시 서울 전역에 추진되었던 '뉴타운'(New Town)을 매개로 추진되었다. 각 지역에 기존 도시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도시조직을 만드는 뉴타운이 조성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각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해당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당시 분포된 문화시설 현황 및 지역실태 파악, 뉴타운별 문화시설 확충방안 제안이 주요한 연구내용이다. 주목할 점은 동 연구에서 제시한 문화시설 배치의 전략이다. 동 보고서는 문화시설은

설치목적에 따라 예술생태형과 시민문화형으로 나누고, 각 시설의 설치기준을 달리 제시했다. 예컨대 창작시설이나 공연장, 전시장, 아카이빙 시설 등은 예술생태형 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분산형 배치보다 예술활동 및 시설이 밀집된 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문화교육시설이나 복지시설, 지역문화 관련 시설 등과 같은 시민문화형 시설은 지역별로 균형 배치해야 한다.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장소성에 기초한 지역특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주장이다. 더불어 이 보고서는 전문문화시설과 복합문화센터로 시설을 분류하고, 전문문화시설은 민간주도로 확충하고, 복합문화센터는 공공이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서울시에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16년이다. 2016년 당시 단일 도시계획체계로 되어 있던 도시기본계획이 116개의 생활권 단위로 하위체계를 형성하고 재분류되자 생활권별로 공공기여 등 가용할 수 있는 기반 발생 시 필요한 문화시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 및 배치전략〉 연구를 시행한다(라도삼 외,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에 대응해 116개 생활권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 전역의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법적·정책적으로 필요한 문화시설을 분석한 다음 각 생활권에 해당 문화시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는 구성된다. 이처럼 서울시는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화시설 확충전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서남권 또한 적정한 기준과 전략체계에 따라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현황과 미래 방향,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료: 라도삼·신슬기(2004): 138

[그림 2-1] 문화기반시설 확충전략(2004 연구 결과)



03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특성



1_서남권 문화시설 분포현황

2_서남권 문화시설 분포특성

03.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특성

1_서남권 문화시설 분포현황¹⁾

1) 서남권 전체 현황

서남권에는 현재 총 465개의 문화시설이 있다. (등록)공연장이 35개, 영화관이 20개로 공연시설이 55개 있고, 박물관 8개, 미술관 4개 등 총 12개의 전시시설이 있다. 도서관은 381개가 있다. 이 중 331개는 작은도서관이다. 생활문화시설은 총 17개가 있다. 생활문화센터가 1개, 문예회관과 지방문화원이 각 구당 1개씩 7개, 문화의 집 2개 등이 분포한다.¹²⁾

총수로 보면 서남권 문화시설은 그리 적지 않다. 서울시 문화시설이 총 1,967개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서울시 문화시설 중 23.6%가 서남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 구성 및 인구 당면적 당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시설 구성면으로 보면 가장 많은 시설이 도서관, 그것도 ‘작은도서관’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총 331개로 전체 문화시설의 71.2%에 달한다. 절대다수가 ‘작은도서관’이란 얘기다. 이에 반해 공연장 7.5%, 영화관 4.3%, 박물관·미술관 2.6%, 생활문화시설 3.7%에 불과하다. 서남권에 있는 시설 대부분은 도서관인 것이다. 이에 결코 문화시설이 많다 할 수 없다.

11)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을 조사하는 데 앞의 문화시설 기준 중 지역별 분산배치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시설은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 생활문화시설 등이다. 공연시설은 공연장과 영화관, 전시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구성하였고,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조사하였으며, 생활문화시설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등을 조사하였다. 목적성 시설인 창작공간 및 문화보급전수시설 등은 제외하였고, 마을예술창작소 등과 지원시설 또한 제외하였다.

12)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은 「2021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2021. 1. 1. 기준)을 기준으로, 등록공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등을 기준으로 했다.

[표 3-1] 서남권 문화시설 총수 및 서울 내 분포비율

(단위: 개, %)

구분		서울시 전체	서남권 수	각 시설의 비중	서울 대비 서남권 비율
공연시설	등록공연장	414	35	7.5	8.5
	영화관	95	20	4.3	21.1
	소계	509	55	11.8	10.8
전시시설	박물관	131	8	1.7	6.1
	미술관	49	4	0.9	8.2
	소계	180	12	2.6	6.7
도서관	도서관	191	50	10.8	26.2
	작은도서관	1,027	331	71.2	32.2
	소계	1,218	381	81.9	31.3
생활문화시설	생활문화센터	5	1	0.2	20.0
	문화예술회관	25	7	1.5	28.0
	지방문화원	25	7	1.5	28.0
	문화의 집	5	2	0.4	40.0
	소계	60	17	3.7	28.3
총계		1,967	465	100	23.6

자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이 점은 서울 전체에서 해당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지적인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도서관은 서울시 전체에서 31.3%를 차지한다. 생활 문화시설 또한 28.3%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예술시설인 공연장은 8.5%에 불과하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더 부족하여 각각 6.1%, 8.2%에 불과하다. 그나마 영화관만 상대적으로 높은 21.1%다. 즉, 서남권에 도서관은 서울시 전체에 비했을 때 적지 않지만, 주요한 예술시설인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이 적은 '예술소외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구면적당 문화시설 수로 보면 더 확연히 알 수 있다. 우선 인구당 문화시설 수를 살펴보면, 인구 1만 명 당 서남권 문화시설 수는 1.56개이다. 서울시 평균 2.05개에 비해 낮은 수치다. 도심권 7.97개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고, 서북권 2.00개, 동남권 1.87개, 동북권 1.68개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더구나 이 수치는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더 떨어진다. 다른 지역도 '작은도서관'이

많아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서울 전체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가 0.98개로 낮아지는데, 서남권은 이보다 낮은 0.45개이다. 도심권은 6.68개, 동남권은 0.93개, 서북권은 0.82개, 동북권은 0.64개로, 그 차이는 '작은도서관'을 포함했을 때보다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면적당 문화시설 수도 마찬가지다. 면적 1km² 당 서울시 평균 3.25개인 것에 비해 서남권 문화시설 수는 2.86개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동남권 2.58개에 비해 높으나 도심권 7.23개, 서북권 3.22개, 동북권 2.90개와 비교하면 떨어진다. 더구나 '작은도서관'을 제외하면 이 순위도 달라진다. 동남권이 1.28개로 서남권에 비해 높아지고, 도심권 6.06개, 동북권 1.10개, 서북권 1.32개에도 떨어진다.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곤 서남권에 문화시설이 서울지역 중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다는 뜻이다.

[표 3-2] 서남권 인구/면적당 문화시설 수

(단위: 개)

구분	문화시설 수		인구 1만 명당 수		면적 1km ² 당 수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서울시 전체	1,967	940	2.05	0.98	3.25	1.55
서남권	465	134	1.56	0.45	2.86	0.82
도심권	403	338	7.97	6.68	7.23	6.06
동북권	496	188	1.68	0.64	2.90	1.10
서북권	229	94	2.00	0.82	3.22	1.32
동남권	374	186	1.87	0.93	2.58	1.28

자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2) 자치구별 현황

서남권 중 문화시설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구로구(101개)다. 그 뒤를 이어 강서구 87개, 관악구 66개, 영등포구 61개, 동작구 58개, 양천구 55개, 금천구 37개 등으로 나타난다. 총 101개인 구로구에 비해 금천구는 37개로 64개 정도 차이가 난다.

서남권 전역과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도서관이다. 도서관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강서구 73개, 관악구 55개, 동작구 51개, 영등포구 46개, 양천구 44개, 금천구 27개 등의 순이다. 그러나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다.

동작구가 8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구로구 84.2%, 강서구 83.9%, 관악구 83.3%, 양천구 80.0%, 영등포구 75.4%, 금천구 73.0% 등의 순이다.

[표 3-3] 서남권 자치구별 문화시설 분포현황

(단위: 개, %)

구분		서남권 전체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공 연 시 설	등록 공연장	시설 수	35	2	3	9	5	3	6	7
		비율	7.5	2.3	4.5	8.9	13.5	5.2	10.9	11.5
	영화관	시설 수	20	6	2	3	2	2	2	3
		비율	4.3	6.8	3.0	3.0	5.4	3.4	3.6	4.9
	계	시설 수	55	8	5	12	7	5	8	10
		비율	11.8	9.2	7.6	11.9	18.9	8.6	14.5	16.4
전 시 시 설	박물관	시설 수	8	2	2	1	0	1	0	2
		비율	1.7	2.3	3.0	1.0	0.0	1.7	0.0	3.3
	미술관	시설 수	4	1	2	0	0	0	0	1
		비율	0.9	1.1	3.0	0.0	0.0	0.0	0.0	1.6
	계	시설 수	12	3	4	1	0	1	0	3
		비율	2.6	3.4	6.0	1.0	0.0	0.6	0.0	4.9
도 서 관	도서관	시설 수	50	9	5	11	4	6	9	6
		비율	10.8	10.3	7.6	11.0	10.8	10.3	16.4	9.8
	작은 도서관	시설 수	331	64	50	74	23	45	35	40
		비율	71.2	73.6	75.6	73.3	62.2	75.9	63.6	65.6
	계	시설 수	381	73	55	85	27	51	44	46
		비율	81.9	83.9	83.3	84.2	73.0	87.9	80.0	75.4
생 활 문 화 시 설	생활 문화센터	시설 수	1	0	0	0	1	0	0	0
		비율	0.2	0.0	0.0	0.0	2.7	0.0	0.0	0.0
	문예회관	시설 수	7	1	1	2	1	0	1	1
		비율	1.5	1.1	1.5	2.0	2.7	0.0	1.8	1.6
	지방 문화원	시설 수	7	1	1	1	1	1	1	1
		비율	1.5	1.1	1.5	1.0	2.7	1.7	1.8	1.6
	문화의 집	시설 수	2	1	0	0	0	0	1	0
		비율	0.4	1.1	0.0	0.0	0.0	0.0	1.8	0.0
	계	시설 수	17	3	2	3	3	1	3	2
		비율	3.6	3.4	3.0	3.0	8.1	1.7	5.4	3.2
계	시설 수	465	87	66	101	37	58	55	61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연장이 가장 많은 곳은 구로구(9개)다. 이어 영등포구(7개), 양천구(6개), 관악구와 동작구(각 3개), 강서구(2개) 순으로 분포한다. 영화관이 많은 구는 강서구로 6개이고, 나머지 구는 2~3개가 분포한다.

박물관은 총 8개로 강서구, 관악구, 영등포구에 각 2개씩 있고, 구로구와 동작구에 각 1개씩 있다. 총 4개인 미술관은 관악구에 2개, 강서구와 영등포구에 각각 1개씩 있다. 인구 당면적 당 문화시설 현황으로 보면, 자치구 간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를 보면, 구로구가 2.32개로 서남권 평균인 1.56개를 넘는다. 그러나 나머지 구는 모두 평균 이하로 강서구 1.54개, 영등포구 1.51개, 금천구와 동작구가 1.48개, 관악구가 1.31개 등의 순이다. 작은도서관을 빼면, 다소 다르다. 구로구와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이 서남권 평균인 0.45개를 넘어 각각 0.62개, 0.56개, 0.52개로 나타나고, 강서구(0.41개), 동작구(0.33개), 관악구(0.32개) 등이 평균 이하로 나타난다.

면적 1km²당 문화시설 분포현황을 보면, 이 역시 가장 높은 것이 구로구다. 구로구는 5.02개로 가장 높다. 동작구 3.55개, 양천구 3.16개 등은 서남권 평균을 넘고, 강서구 2.10개, 관악구 2.23개, 영등포구 2.48개, 금천구 2.84개 등은 평균보다 낮다. ‘작은도서관’을 빼면, 구로구(1.34개), 양천구(1.15개), 금천구(1.08개), 영등포구(0.86개) 등이 서남권 평균보다 높고, 동작구(0.79개), 강서구(0.56개), 관악구(0.54개) 등이 낮다.

【표 3-4】 인구당 및 면적당 서남권 자치구별 문화시설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시설 수		인구 1만 명당 문화시설 수		면적 1km ² 당 문화시설 수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전체	작은도서관 제외
서울시 전체	1,967	940	2.05	0.98	3.25	1.55
서남권 전체	465	134	1.56	0.45	2.86	0.82
강서구	87	23	1.54	0.41	2.10	0.56
관악구	66	16	1.31	0.32	2.23	0.54
구로구	101	27	2.32	0.62	5.02	1.34
금천구	37	14	1.48	0.56	2.84	1.08
동작구	58	13	1.48	0.33	3.55	0.79
양천구	55	20	1.25	0.46	3.16	1.15
영등포구	61	21	1.51	0.52	2.48	0.86

자료: 도서관·박물관·미술관·생활문화센터·문화예술회관·지방문화원·문화의 집: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홈페이지(2022. 3. 28. 기준)

문화시설 분석에 있어 시설 수만큼 중요한 것은 지역의 문화생활을 이끄는 주요한 문화시설에 대한 분석이다. 또한 문화시설로 분류되지 않으나, 문화환경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시설도 있다. 이에 서남권 문화환경을 이끄는 주요한 문화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요한 공연시설로 <디큐브아트센터>와 <LG아트센터 서울>가 있다. <디큐브아트센터>는 구로구 경인로 662 신도림동에 위치한 <디큐브시티> 내에 있는 공연장이다. 2011년 8월 30일 뮤지컬 ‘맘마미아’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서남권의 주요한 뮤지컬 공연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장의 총 객석 수는 1,242석(총2층)이다.

<LG아트센터 서울>은 2003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LG아트센터>가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2022년 10월에 개관했다. 안도 다다오(Ando Tadao)의 설계로 건축된 <LG아트센터 서울>은 1,355석의 다목적 공연장과 2개 층 365석으로 구성된 가변형 극장, 강의실과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큐브시티>와 달리 주로 동시대성을 띤 무대 예술작품을 올린다.

전시시설로는 <남서울미술관>이 있다.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6에 위치한 <남서울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분관으로, 대한제국(1897~1910) 시기 벨기에 영사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사적 제254호)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모는 작으나 건물이 주는 가치로 주목할 만하다. 더불어 서남권에는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시설이 존재한다. 동작구에는 <한국기독교박물관>(동작구 상도로 369)이 있고, 관악구에는 호림(湖林) 윤장섭 선생¹³⁾을 기리는 <호림박물관>(관악구 남부순환로152길 53)이 있으며, <서울대박물관>(관악구 관악로 1)과 <허준박물관>(강서구 허준로 87), <겸재정선미술관>(강서구 양천로47길 36), <G밸리산업박물관>(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등이 있다.

서남권에 주목할 만한 시설 중 하나는 서울시 창작공간이다. 현재 서남권에는 2009년 문을 연 <금천예술공장>과 2010년 개관한 <문래예술공장>이 있고, 영등포문화재단이 2022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가 있다. <금천예술공장>은 국제적인 레지던시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문래예술공장>은 문래창작촌을 지원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는 예술과 기술을 융합

13) 호림 윤장섭은 기업인으로 국보 8점을 비롯해 문화재 1만 5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1981년 성보문화재단을 설립했고, 1982년 대치동에 호림박물관을 개관했다. 1999년 현재의 자리인 신림동에 호림박물관을 이전 개관했고, 2009년에 신사동에 신사분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동 건물에는 호림아트센터도 운영 중이다.

하는 의미의 '술술센터'로 문래동 예술가의 작품 전시 및 커뮤니티 공간, 예술가와 지역 공장기술자들이 만나 새롭게 만나 창작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금천구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뮤지컬 특화시설인 <금천뮤지컬센터>(금천문화재단)가 있다. 2021년 11월 19일 문을 연 <금천뮤지컬센터>는 뮤지컬 프로그램 개발 및 제작,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운영한다. 다른 한편, 금천구에는 <국립전통예술학교>가 있다. 1960년에 설립된 <국립전통예술학교>는 종로구 관훈동과 운니동, 석관동 등에 있다가 1992년 현 위치인 시흥동에 자리 잡았다. 현재는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중학교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_서남권 문화시설 분포특성

1) 절대 수의 부족

서남권 문화시설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절대 수의 부족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면적당 기준에서 서울시 평균(인구 1만 명당 2.05개, 면적 1km²당 3.25개)에 비해 떨어진다(인구 1만 명당 1.56개, 면적 1km²당 2.86개).

더구나 서남권에 부족한 문화시설은 예술시설이다. 공연장은 서울시 전체 시설 중 8.5%, 박물관은 6.1%, 미술관은 8.2%가 분포한다. 그나마 영화관은 서울시 전체의 21.1%를 차지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서남권에 특히 부족한 시설은 박물관과 미술관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12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자치구에 1~2개의 시설이 있고 금천구, 양천구에는 박물관이, 구로구, 동작구, 금천구, 양천구에는 미술관이 없다. 금천구에는 박물관도 미술관도 없다.

[표 3-5] 서남권 예술시설 분포현황 - 서울시 대비 분포 비율

(단위: 개, %)

구분			서남권 전체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 총수
공연시설	등록 공연장	시설 수	35	2	3	9	5	3	6	7	414
		비율	8.5	0.5	0.7	2.2	1.2	0.7	1.4	1.7	100
	영화관	시설 수	20	6	2	3	2	2	2	3	95
		비율	21.1	6.3	2.1	3.2	2.1	2.1	2.1	3.2	100

구분		서남권 전체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울 총수
계	시설 수	55	8	5	12	7	5	8	10	509
	비율	10.8	1.6	1.0	2.4	1.4	1.0	1.6	2.0	100
박물관	시설 수	8	2	2	1	0	1	0	2	131
	비율	6.1	1.5	1.5	0.8	0.0	0.8	0.0	1.5	100
미술관	시설 수	4	1	2	0	0	0	0	1	49
	비율	8.2	2.0	4.1	0.0	0.0	0.0	0.0	2.0	100
계	시설 수	12	3	4	1	0	1	0	3	180
	비율	6.7	1.7	2.2	0.6	0.0	0.6	0.0	1.7	100

자료: 박물관·미술관: 문화체육관광부(2021)(2021. 1. 1. 기준)

등록공연장: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영화관: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홈페이지(2020. 12. 31. 기준)

2) 과도한 공공시설 의존

서남권 문화시설 분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민간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채 대부분 공공 시설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총 35개에 불과한 공연장은 대부분 자치구 공연장이다. 민간 문화시설은 <디큐브아트센터>, <LG아트센터 서울> 등 몇 곳에 불과하다. 그 결과 대중적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2019년에 조사한 김다연의 연구는 이를 보여준다. 그는 서남권 거주자 중 문화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서남권 거주 응답자 중 61%가 <디큐브아트센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구로아트벨리> 11.4%, <금나래아트홀> 3.4%, <영산아트홀> 2.3%, <영등포아트홀>, <양천문화회관> 1.1% 등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다연, 2019: 53). 이 점에서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 중심의 문화시설 구성은 대중적인 관심과 소비를 끌어내지 못해 문화시장을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에 문화시장을 형성하는 대중적인 문화시설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서남권 문화시설 현실 및 여건 변화에 있어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연계성이 없는 고립된 시설

문화시설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역을 문화적 이미지로 상징화하고, 지역 내 여러 문화요소를 유입시켜 지역 자체를 예술(생태)지역으로 장소화·기호화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예술의 전당>의 경우 서초동 지역에 악기상가를 밀집시켜 지역 자체를 클래식 음악지역으로 만들었다. 현재 이 지역은 '서초음악문화지

구'로 지정되어 있다.¹⁴⁾

그런데 서남권은 문화시설을 바탕으로 아직 예술(생태)지역을 형성한 곳이 없다. 또한 서남권을 상징할만한 뚜렷한 위상과 선도성을 갖춘 문화시설도 없다. 2011년 개관한 <디큐브시티>나 2022년 개관한 <LG아트센터 서울> 모두 주변에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을 예술성으로 상징하기엔 아직은 지역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다.



자료: 서초구(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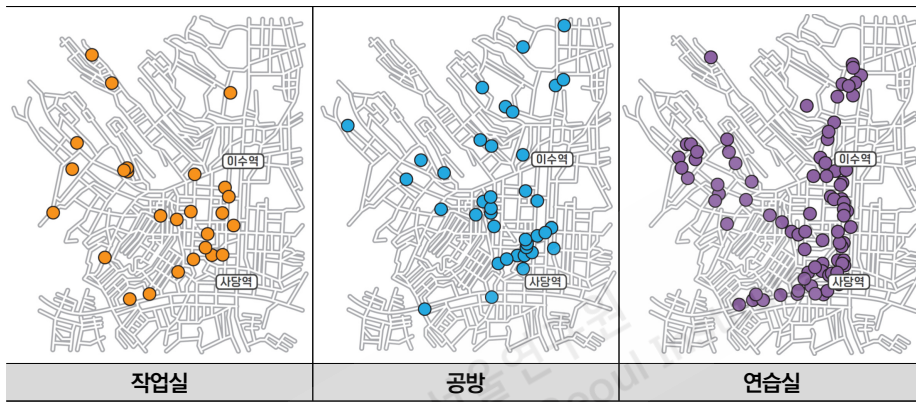
[그림 3-1] 서초음악문화지구 지정범위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정작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예술지역에는 해당하는 문화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다수의 예술가가 밀집하여 활동하는 ‘문래창작촌’에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문래예술공장>과 영등포문화재단이 설립·운영하는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술술센터)가 있지만, 아직 지역의 활동을 전시하거나 지원할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각 자치구의 문화재단으로 지역관리 정책을 옮기고, 서울 전역에 걸친 실험적인 창작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서울시 창작공간 기능

14) 서초음악문화지구는 2018년 서초구에 의해 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이 이전함에 따라 <문래예술공장> 또한 문래창작촌 지원시설에서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¹⁵⁾

또 다른 예술인 밀집지역인 동작구 사당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동작구에서 작성한 문화 지도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엔 46개의 소공연장 및 연습실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지원하는 시설은 없다. 이에 문화시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엔 문화시설이 없는 ‘불일치성’을 띠고 있는 것이 서남권 문화시설 분포의 특징이다. 향후 이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동작문화재단(2021)

[그림 3-2] 동작구 사당동 지역 문화공간 분포도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설 부족

지적인 바와 같이 서남권은 공업지역으로 발달한 지역이다. 공단 외에도 서남권에는 문화적으로 특화된 여러 지역이 있다. 2016년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남권 내 문화특화지역은 총 29곳이다. 신도림 고시촌, 남구로 시장,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등 8개의 계층특화문화지역과 산업문화지역(5개), 소비문화지역(14개), 역사문화지역(1개), 예술문화지역(1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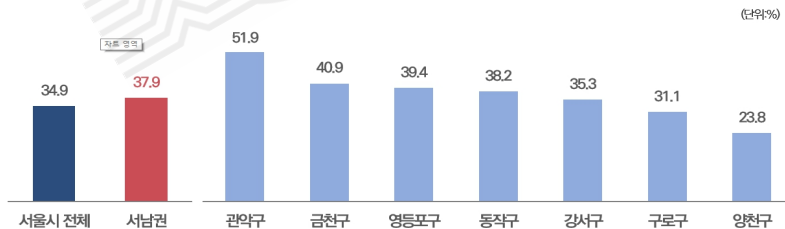
¹⁵⁾ 그 출발은 2022년 문래창작촌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던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TT’의 폐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영등포활주로 외, 2022: 21).

[표 3-6] 서남권 문화특화지역 현황

유형	지역명	개수
계층문화지역	신림동 고시촌, 남구로시장, 가리봉 중국동포타운, 노량진 학원가, 노량진 컵밥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대림 차이나타운, 영등포구 쪽방촌	8
산업문화지역	구로 기계공구상가단지, 구로디지털밸리, 독산동(시흥동) 기계 및 금속제조업, 노량진 수산시장, 문래동 기계 및 금속제조업	5
소비문화지역	녹두거리, 사로수길, 서원동상점가, 신림동 순대타운, 행운동먹자골목, 견고심은문화거리, 구로시장 떡볶이 골목, 깔깔거리, 가산 로데오거리, 먹거리촌, 목동 로데오거리, 당산 먹자골목, 문래역로데오거리, 신길동 흥어거리	14
역사 문화지역	허준테마거리	1
예술 문화지역	문래창작촌	1

자료: 라도삼·이정현(2017): 74

여러 특화지역이 있는 만큼 이들 특성을 보여주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보여주는 시설은 <G밸리산업박물관>(MUSEUM G) 뿐이다. 2022년 시립시설로 개관한 <G밸리산업박물관>은 1960년대 구로공단부터 21세기 G밸리에 이르기까지 구로 지역의 주요한 역사를 전시하고 있다. 특히 <G밸리산업박물관>은 1964년부터 옛 구로공단 일대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했던 <구로정수장> 부지에 건립되어 지역의 역사를 조망한다. 그러나 공업지역으로서의 지역발전 외 지역(민)의 삶-공장노동자나 지역민-을 보여주는 시설은 없다. 또한 공단을 매개로 이 지역에 넓게 분포된 이주민¹⁶⁾의 역사나 문화를 보여주는 시설 또한 없고, 지역의 특성인 1인 가구¹⁷⁾와 관련된 시설도 없다. 지역의 인구특성을 반영한 시설은 없는 것이다.



자료: 변미리 외(2022)

[그림 3-3] 서남권 지역 1인 가구 현황

16) 서남권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020년 현재 211,812명으로 서울시 전체 외국인의 47.7%를 차지한다(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 참조).

17) 2021년 「서울서베이」 결과 서남권의 1인 가구 비율은 37.9%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평균 34.9%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관악구는 전체 가구의 51.9%가 1인 가구로 나타났고, 금천구 40.9%, 영등포구 39.4%, 동작구 38.2%, 강서구 35.3% 등으로 총 5개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31.1%, 양천구 23.8%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상태다.

04

서남권 주민과 문래동 지역 문화욕구



- 1_서남권 시민 문화욕구
- 2_문래동 지역 문화욕구

04. 서남권 주민과 문래동 지역 문화욕구

1_서남권 시민 문화욕구

1) 조사개요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남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실태 및 문화욕구를 조사하였다. 조사는 서남권에 속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100명씩을 추출하여 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서남권 외 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서남권 주민과 비교하고자 했다. 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10일~16일까지 7일간이었고,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설문이었다.

[표 4-1] 조사 개요

구분	서남권 조사	서남권 이외 권역 조사
조사 대상	서울 서남권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서울 서남권 이외 권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 수	서남권 700명 (자치구별 100명)	도심권 70명, 동북권 110명, 서북권 110명, 동남권 11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7%포인트	95% 신뢰수준에서 ± 9.3 ~ 11.7%포인트
표본추출 방법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자치구별 100표본 균등할당 후 성/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무작위 할당 추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라 권역별 임의할당 후 성/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무작위 할당 추출
통계보정	거주 자치구/성/연령대별 가중값 부여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2년 8월 10일~16일 (7일간)	
조사 기관	(주)글로벌리서치	

조사 내용은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 형태, 거주하는 자치구의 여건과 문화환경, 서울 전반 및 권역별 문화환경, 서남권 문화환경 진단 등으로 구성하였다. 앞의 세 가지 항목은 모든 응답자에게 물었고, 마지막 조사 항목은 서남권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 4-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 형태	-선호하는 문화활동 -직접 경험한 오프라인 문화활동 및 주요 활동 지역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직접 경험한 오프라인 문화시설/공간 및 만족도 -평소 문화활동에 대한 인식 -삶의 질 만족도
거주하는 자치구의 여건과 문화환경 진단	-거주하는 자치구에 대한 인식과 활동 형태 -거주하는 자치구의 생활 여건 만족도 -거주하는 자치구의 문화 관련 인식 -거주하는 자치구의 향후 문화 발전 여건과 의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서울 전반 및 권역별 문화환경 진단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문화환경이 잘 갖춰진 권역과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화환경이 가장 낙후된 권역 및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거주하는 권역에 대한 평가 -거주하는 권역의 문화환경 변화 방향 -서울시 문화환경 변화 방향
서남권 문화환경 진단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 -문화환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치구 -문화환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문화환경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자치구 -문화환경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일반사항	-거주지역, 성, 연령, 학력, 직업, 장애 여부, 혼인상태, 가구소득 -거주하는 가족 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여부 -거주하는 자치구에서의 총거주기간

분석은 각 자치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처리하였다. 이에 서남권의 경우 표본 수와 가중 표본이 다르다. 다른 한편 조사결과 중 응답 표본이 적은 ‘자치구 문화시설/공간 만족도’ 등은 제외하였고, 논리적 흐름에 따라 △문화활동 실태, △지역생활 만족도, △자치구 문화환경 진단, △지역 간 문화 격차, △서남권 문화발전 방향과 필요한 문화시설 등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였다.

[표 4-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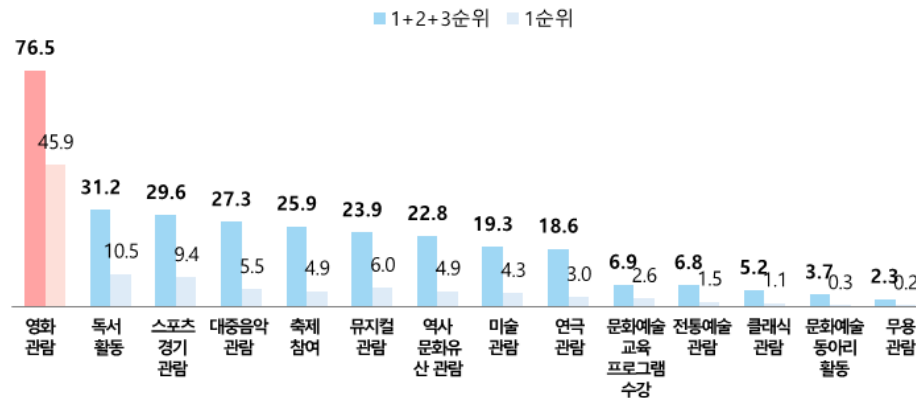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가중값 적용
도심권		70	70
동북권		110	110
서북권		110	110
동남권		110	110
서남권	동작구	100	93
	영등포구	100	92
	관악구	100	124
	금천구	100	56
	구로구	100	94
	강서구	100	139
	양천구	100	102

2) 조사 결과

(1) 문화활동 실태와 태도

① 선호하는 문화활동

평소 선호하는 문화활동을 조사한 결과(1~3순위 기준), 영화관람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독서활동’, ‘스포츠 관람’, ‘대중음악 관람’, ‘축제 참여’, ‘뮤지컬 관람’, ‘역사문화유산 관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 관람’과 ‘연극 관람’ 등은 10%대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고, ‘전통예술 관람’, ‘클래식 관람’, ‘무용 관람’ 등은 7% 이하의 낮은 관람률을 보였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또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림 4-1] 주로 하는 문화활동 - 서남권 평균

서남권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관악구와 금천구, 강서구 등이 '영화 관람'이 다소 높고,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서 '스포츠 관람'이 다소 높게 나온다. '대중음악 관람'은 관악구와 양천구에서, '뮤지컬 관람'은 금천구, '역사 문화 관람'은 강서구와 구로구 등에서 조금 높게 나온다.

[표 4-4] 주로 하는 문화활동(1+2+3순위) - 서남권 상위 7개

(단위: %)

자치구	영화 관람	독서 활동	스포츠 경기 관람	대중음악 관람	축제 참여	뮤지컬 관람	역사 문화유산 관람
서남권 평균	76.5	31.2	29.6	27.3	25.9	23.9	22.8
동작구	75.0	33.5	27.4	28.4	22.1	29.4	24.6
영등포구	76.0	24.3	29.8	26.3	28.9	27.1	23.5
관악구	79.0	34.7	30.1	33.0	20.1	20.1	13.8
금천구	78.7	31.1	30.9	28.0	25.2	31.8	18.1
구로구	75.1	31.9	33.1	28.1	28.2	18.8	27.2
강서구	77.9	26.6	28.0	19.0	27.3	22.1	30.0
양천구	73.7	36.7	28.9	30.6	29.9	23.4	20.0

② 문화시설 이용 정도

자치구 내 (공공)문화시설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대다수 주민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은 다른 문화시설에 비해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문화체육센터, 축제, 주민자치센터,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문화원은 이용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다. 동북권과 서북권은 서남권과 마찬가지로 도서관 이용률이 높았다. 동남권은 문예회관 이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심권은 다른 권역보다 청소년문화시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5] 거주하는 자치구 내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 권역 간 비교

(단위: %)

권역	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	(문화) 체육 센터	문화 축제	주민 자치 센터	문화 예술 회관	청소년 문화시설	사회 복지관	지방 문화원
서남권	55.8	24.6	22.2	20.7	20.4	10.4	10.0	4.5
도심권	42.9	25.7	30.0	12.9	22.9	21.4	10.0	7.1
동북권	59.1	24.5	29.1	17.3	22.7	10.9	3.6	3.6
서북권	52.7	20.0	24.5	17.3	22.7	12.7	8.2	5.5
동남권	47.3	19.1	32.7	24.5	36.4	10.9	12.7	8.2

서남권 내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양천구의 도서관 이용률이 다소 높았다. 영등포구는 문화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축제는 강서구, 청소년 문화시설은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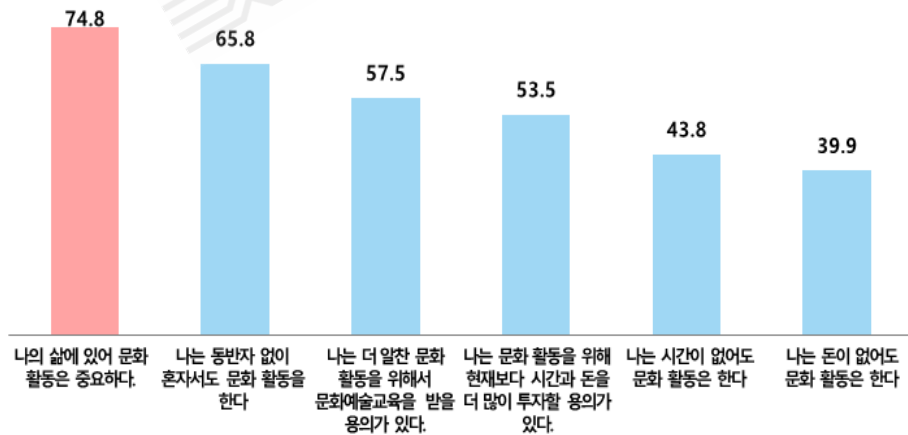
[표 4-6] 거주하는 자치구 내 이용 경험이 있는 문화시설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단위: 명, %)

자치구	도서관	(문화) 체육 센터	문화 축제	주민 자치 센터	문화 예술 회관	청소년 문화시설	사회 복지관	지방 문화원
서남권 평균	55.8	24.6	22.2	20.7	20.4	10.4	10.0	4.5
동작구	60.9	21.8	17.0	21.1	11.8	14.1	8.9	5.3
영등포구	49.8	35.6	20.7	22.7	31.0	13.8	11.0	4.9
관악구	53.8	22.8	26.1	21.1	21.3	8.0	11.0	5.1
금천구	59.1	24.9	16.8	28.9	26.9	9.1	5.9	5.0
구로구	51.5	21.0	15.2	19.9	12.3	6.0	9.8	2.1
강서구	52.6	22.1	30.4	14.9	19.8	10.1	7.9	5.0
양천구	65.1	26.2	21.8	22.2	22.4	12.1	14.1	4.2

③ 문화활동 태도

문화활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화활동의 중요성' 및 '활동 의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활동의 중요성'은 동의율이 74.8%로 높게 나왔다. 그러나 활동의 지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시간이 없어도 문화활동을 한다'(43.8%)나 '돈이 없어도 문화활동을 한다'(39.9%)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나마 '문화활동을 위해 교육받을 용의가 있다'(57.5%)나 '현재보다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하겠다'(53.5%) 등이 50% 이상의 응답을 받아 잠재적인 의지가 있음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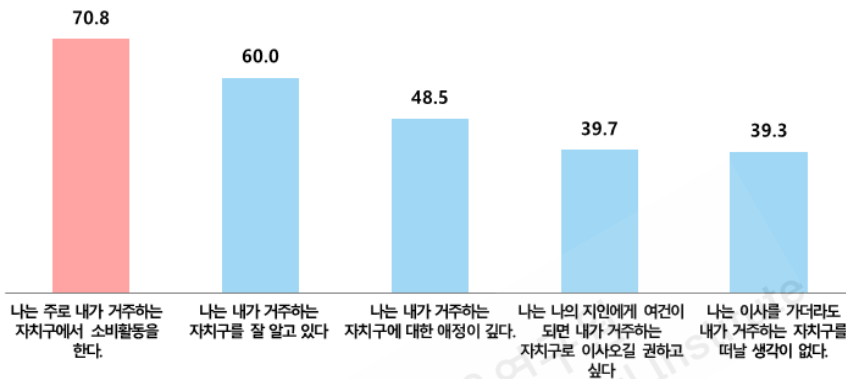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림 4-2] 문화에 대한 태도 - 서남권 평균

(2) 지역 생활과 만족도

① 지역 생활과 만족도

자치구 내 문화여건 및 문화시설 만족도, 확충방향을 묻기에 앞서 자치구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물었다. 그 결과 다수의 응답자(70.8%)가 자치구 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에게 이사오기를 권유한다’(39.7%)거나 ‘자치구를 떠날 생각이 없다’(39.3%)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치구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림 4-3] 거주하는 자치구 만족도 - 서남권 평균

이 점은 다른 권역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자치구 내 소비활동’을 보면 동남권이 77.3%로 다른 권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 다른 응답도 마찬가지로 동남권이 높다. 그런데 ‘자치구 인지도’ 및 ‘애정도’는 동남권을 제외하고 서남권이 조금 높은 편이나, ‘이사권유 의사’, ‘자치구를 떠날 의사 없음’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치구를 떠날 의사 없음’만 동북권에 비해 약간 높을 뿐이다.

[표 4-기] 거주하는 자치구 만족도 - 권역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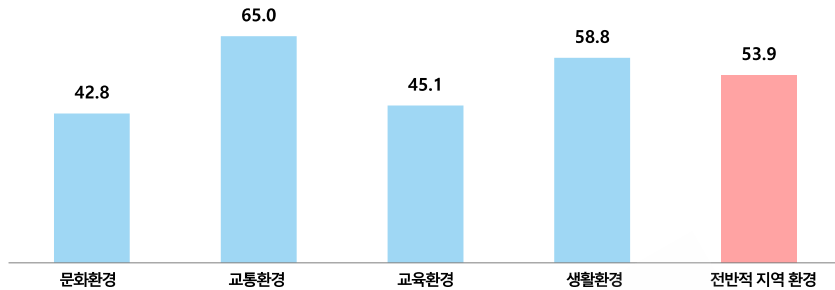
(단위: %)

권역	거주하는 자치구에서 소비활동 함	거주하는 자치구를 잘 알고 있음	거주하는 자치구에 대한 애정 깊음	거주하는 자치구로 이사 오길 권하고 싶음	거주하는 자치구를 떠날 생각 없음
서남권	70.8	60.0	48.5	39.7	39.3
도심권	65.7	50.0	42.9	45.7	42.9
동북권	65.5	60.9	47.3	42.7	35.5
서북권	66.4	52.7	58.2	50.0	51.8
동남권	77.3	68.2	70.0	62.7	63.6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② 지역 환경 평가

서남권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전반적 지역 환경 및 분야별 지역 환경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교통환경 및 생활환경, 전반적 지역환경 등은 50% 이상의 동의율을 얻은 반면, 문화환경과 교육환경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통환경과 생활환경은 그런대로 만족하나 교육환경 및 문화환경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그림 4-4] 거주하는 자치구 지역 환경 만족도 - 서남권 평균

다른 권역과 비교해 보면, 교통환경은 유사하나 생활과 교육, 문화환경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동남권에 비해선 생활, 교육, 문화환경 및 전반적 지역 환경 면에서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권역과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표 4-8] 거주하는 자치구 지역 환경 만족도 - 권역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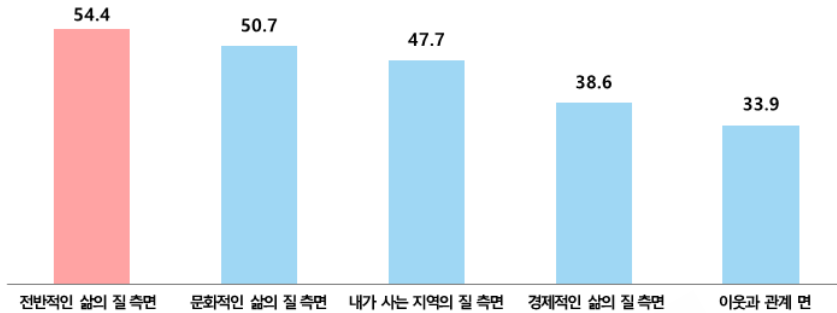
(단위: %)

권역	교통환경	생활환경	교육환경	문화환경	전반적 지역 환경
서남권	65.0	58.8	45.1	42.8	53.9
도심권	67.1	64.3	40.0	68.6	62.9
동북권	60.0	49.1	42.7	38.2	50.0
서북권	66.4	60.0	47.3	49.1	61.8
동남권	69.1	80.9	78.2	68.2	77.3

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③ 삶의 질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하는 비율은 54.4%로 나타났다. ‘문화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에 50.7%가 긍정했고, ‘지역의 질’ 면에선 47.7%가, ‘경제적인 면’에서는 38.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는 가장 낮은 33.9%가 만족했다.



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그림 4-5] 삶의 질 만족도 - 서남권 평균

다른 권역과 비교해 보면, ‘전반적 삶의 질’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경제적 삶의 질’과 ‘지역의 질’ 면에서 동남권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문화적인 삶의 질’은 동남권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표 4-9] 삶의 질 만족도 - 권역 간 비교

(단위: %)

권역	전반적인 삶의 질	문화적인 삶의 질	경제적인 삶의 질	내가 사는 지역의 질	이웃과 관계
서남권	54.4	50.7	38.6	47.7	33.9
도심권	44.3	44.3	37.1	48.6	32.9
동북권	51.8	44.5	30.9	42.7	31.8
서북권	52.7	43.6	31.8	50.9	33.6
동남권	54.5	54.5	50.0	68.2	44.5

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자치구 간에는 ‘전반적 삶의 질’ 및 ‘문화적 삶의 질’ 면에서 동작구와 영등포구가 높게 나왔다. 반대로 금천구 및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 등이 다소 낮았다.

[표 4-10] 삶의 질 만족도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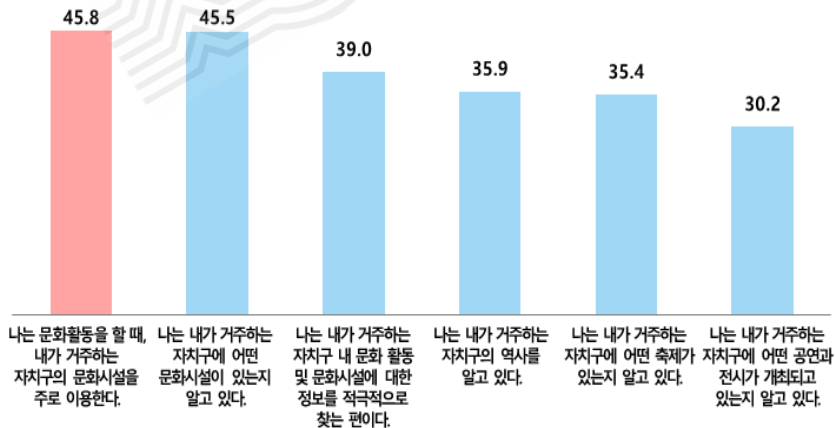
자치구	전반적인 삶의 질	문화적인 삶의 질	경제적인 삶의 질	내가 사는 지역의 질	이웃과 관계
서남권	54.4	50.7	38.6	47.7	33.9
동작구	60.5	56.2	42.1	44.3	35.1
영등포구	67.1	52.0	42.6	54.7	28.7
관악구	48.9	50.1	38.0	51.8	37.1
금천구	48.1	47.9	33.0	36.0	41.0
구로구	56.8	50.8	37.5	40.1	32.9
강서구	52.3	49.2	35.0	49.8	28.9
양천구	48.1	48.7	41.2	49.9	37.4

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3) 자치구 문화환경 진단

① 자치구 문화에 대한 인지와 문화시설 활용 정도

자치구 문화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묻은 결과, 자치구 문화시설 인지도는 45.5%, 이용도는 45.8%의 긍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그러나 '자치구 시설에 대한 정보', '역사 및 축제 참여 의지, 공연 및 전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낮아 적극적인 활용의사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그림 4-6]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환경 인지 정도 - 서남권 평균

사실 이 점은 다른 권역의 조사 결과와도 거의 유사하다. 동남권을 제외하곤 대부분 해당 자치구의 '역사 및 시설, 공연 및 전시, 축제 활동'에 대해서는 낮은 응답을 보여 준다.

[표 4-11]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환경 인지 정도 - 권역 간 비교

(단위: %)

권역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한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시설을 알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문화활동 및 시설 정보를 찾는 편이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역사를 알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공연과 전시에 대해 알고 있다.
서남권	45.8	45.5	39.0	35.9	35.4	30.2
도심권	35.7	44.3	37.1	35.7	31.4	28.6
동북권	43.6	43.6	34.5	37.3	38.2	29.1
서북권	49.1	45.5	31.8	40.0	38.2	30.0
동남권	62.7	58.2	50.0	47.3	42.7	42.7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자치구 응답을 비교해 보면, '문화시설 이용'은 영등포구와 양천구, 강서구에서, '역사'는 관악구와 영등포구에서, '축제'는 강서구에서 다소 높게 나왔다. '자치구 공연 및 전시 정보'는 양천구와 동작구에서 조금 높게 나왔다. 이 결과로 보면, 양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강서구 등에서 자치구 단위 문화활동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환경 인지 정도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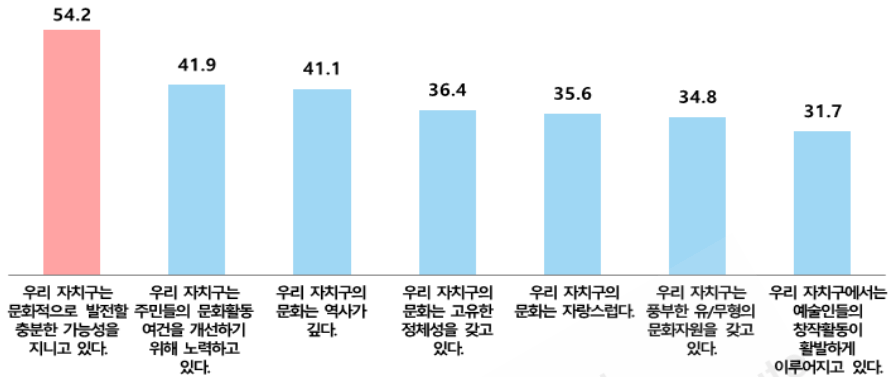
(단위: %)

자치구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한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 내 문화시설을 알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문화활동 및 시설 정보를 찾는 편이다.	나는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역사를 알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거주하는 자치구의 공연과 전시에 대해 알고 있다.
서남권 평균	45.8	45.5	39.0	35.9	35.4	30.2
동작구	43.6	45.0	39.8	33.1	32.9	35.0
영등포구	58.1	49.6	40.7	38.7	32.6	28.6
관악구	38.1	29.1	38.1	40.9	34.0	26.1
금천구	36.0	38.8	30.9	24.0	35.0	29.1
구로구	40.9	47.9	36.6	31.5	38.9	26.8
강서구	49.7	53.2	39.5	39.1	39.9	28.6
양천구	50.8	53.0	44.1	36.1	32.9	38.2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다소 그렇다+매우 그렇다)

② 자치구 문화 여건 평가

각 자치구의 문화 여건에 대해 설문한 결과, 문화적인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유한 정체성’이나 ‘유무형의 문화자원 보유’, ‘예술인 창작활동’ 등에 대해선 40% 이하의 낮은 동의율을 보여주었다. 각 자치구 문화에 대한 자긍심(‘우리 자치구의 문화가 자랑스럽다’) 또한 낮았다.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그림 4-기]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 - 서남권 평균

다른 권역과 비교해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 발전가능성’ 면에서 동남권에 비해 크게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동남권은 ‘문화적 발전가능성’ 및 ‘유무형의 문화자원’, ‘예술인 창작활동’ 면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크게 앞선다. 서남권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다른 권역에 비해 떨어지며 특히 ‘유무형의 문화자원’ 및 ‘예술인 창작활동’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

[표 4-13]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 - 권역 간 비교

(단위: %)

권역	문화적 발전 가능성 있음	주민의 문화활동 여건 개선 노력	역사가 깊음	고유한 정체성 있음	자랑스러움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 있음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발
서남권	54.2	41.9	41.1	36.4	35.6	34.8	31.7
도심권	57.1	52.9	57.1	54.3	48.6	52.9	48.6
동북권	55.5	46.4	48.2	43.6	39.1	42.7	29.1
서북권	67.3	55.5	47.3	53.6	47.3	50.9	41.8
동남권	72.7	57.3	55.5	48.2	54.5	60.0	50.9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서남권 자치구 간에는 ‘문화적 발전가능성’에서 양천구가 높은 동의를 보여주었다. ‘문화활동 개선을 위한 자치구의 노력’ 면에선 관악구와 동작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받았고, 역사(유무형의 자원 및 역사성)에 대해선 ‘동작구’가, ‘예술활동’ 면에서는 영등포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금천구와 구로구는 많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예술활동 면에서는 금천구와 양천구, 동작구, 강서구 등이 낮은 점수를 받아 영등포를 제외한 서남권 전반이 예술활동 면에서 좋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표 4-14]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여건에 대한 평가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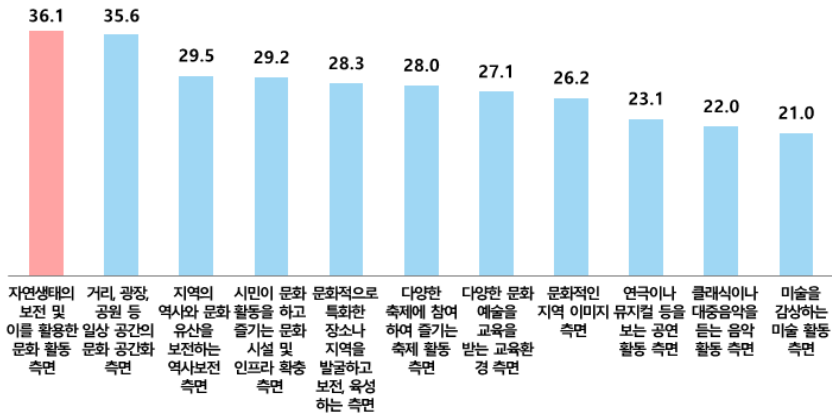
(단위: %)

자치구	문화적 발전 가능성 있음	주민의 문화활동 여건 개선 노력	역사가 깊음	고유한 정체성 있음	자랑스러움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 있음	예술인의 창작활동 활발
서남권	54.2	41.9	41.1	36.4	35.6	34.8	31.7
동작구	57.6	46.1	50.6	46.4	38.9	43.9	27.0
영등포구	51.9	38.5	46.0	45.9	33.9	37.9	45.8
관악구	51.9	48.0	45.1	34.2	39.2	35.2	35.2
금천구	45.9	32.0	35.9	32.9	25.9	30.1	24.1
구로구	49.7	44.6	34.5	33.5	32.6	31.9	35.6
강서구	56.5	40.3	39.7	35.0	38.2	33.9	27.5
양천구	61.6	38.8	34.0	27.8	34.1	29.7	25.2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③ 문화인프라 정도에 대한 평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서남권 지역의 문화환경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문화활동 관련 시설의 충분 정도를 물었다. 그 결과 ‘자연생태 보전 및 이를 활용한 문화활동’과 ‘거리, 광장, 공원 등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등이 1위 군을 형성한 가운데, ‘자연의 역사와 문화유산 보전’, ‘시민문화활동 시설 확충’, ‘문화적 장소나 지역발굴’, ‘다양한 축제활동’, ‘예술교육’, ‘문화적인 지역이미지’ 등이 2위 군을 형성하였다. ‘공연 관람’이나 ‘대중음악 관람’, ‘미술 관람’ 등은 가장 낮은 3위 군을 형성하였다.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좋다+매우 좋다)

[그림 4-8] 거주하는 권역 문화인프라 충분 정도 평가 - 서남권 평균

권역별로 살펴보면, ‘공연·음악·전시 관람’, ‘역사문화 보전’, ‘특화 장소의 발굴’, ‘문화적인 지역이미지 측면’ 등 주요한 부분에서 동남권과 도심권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서남권과 동북권, 서북권 등은 모두 유사하다.

[표 4-15] 거주하는 권역 문화인프라 충분 정도 평가 - 권역 간 비교

(단위: %)

권역	공연 관람 측면	음악 관람 측면	미술 관람 측면	축제 활동 측면	예술 교육 측면	역사 보전 측면	문화적 장소 발굴 측면	문화 인프라 확충 측면	일상 문화 공간 측면	자연 생태 보전 활용 측면	문화적 지역 이미지 측면
서남권	23.1	22.0	21.0	28.0	27.1	29.5	28.3	29.2	35.6	36.1	26.2
도심권	51.4	48.6	55.7	41.4	51.4	68.6	58.6	55.7	51.4	44.3	55.7
동북권	32.7	21.8	28.2	36.4	28.2	43.6	32.7	34.5	44.5	41.8	35.5
서북권	28.2	28.2	27.3	43.6	31.8	43.6	42.7	37.3	46.4	50.9	40.0
동남권	60.9	61.8	60.0	61.8	60.9	61.8	60.0	61.8	70.0	54.5	66.4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좋다+매우 좋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작구는 ‘역사보전’ 및 ‘특화 장소 발굴 측면’에서, 영등포구는 ‘예술교육’과 ‘일상문화공간 측면’에서, 관악구는 ‘일상문화공간 측면’에서 서남권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구로구는 ‘공연활동’과 ‘음악활동’, ‘축제’, ‘자연생태 보전’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고, 양천구는 ‘예술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 4-16] 거주하는 권역 문화인프라 충분 정도 평가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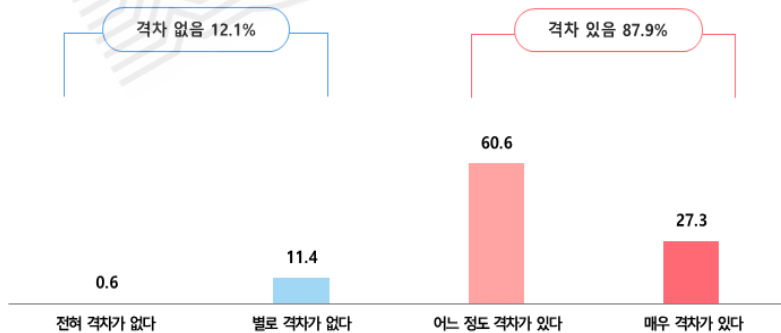
자치구	공연 활동 측면	음악 활동 측면	미술 활동 측면	축제 활동 측면	예술 교육 측면	역사 보존 측면	문화적 장소 발굴 측면	문화 인프라 확충 측면	일상 문화 공간 측면	자연 생태 보존 활용 측면	문화적 지역 이미지 측면
서남권 평균	23.1	22.0	21.0	28.0	27.1	29.5	28.3	29.2	35.6	36.1	26.2
동작구	17.2	22.0	20.9	25.9	23.5	41.9	36.6	33.3	33.0	37.7	27.6
영등포구	26.7	22.6	21.7	28.8	31.6	30.5	30.7	31.8	42.9	36.5	23.0
관악구	21.0	20.1	25.9	26.1	27.0	29.1	26.1	30.0	43.1	42.2	29.2
금천구	23.1	22.2	22.2	28.1	20.0	23.3	22.3	25.4	25.1	22.3	22.3
구로구	28.5	30.8	21.8	34.8	25.5	23.9	28.1	31.8	31.6	41.8	25.9
강서구	21.4	15.1	20.2	27.3	26.4	29.2	27.2	23.1	35.3	35.4	27.2
양천구	25.0	24.6	14.2	26.2	32.7	26.4	26.2	30.0	31.9	30.0	25.0

주)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어느 정도 좋다+매우 좋다)

(4) 지역 간 문화 격차 인식과 요인

① 문화환경 격차에 대한 인식

서남권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시 각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있는지' 설문한 결과, 87.9%의 응답자가 권역 간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별로 격차가 없다'가 11.4%, '격차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0.6%에 불과했다.



[그림 4-9]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서남권 평균

권역별로 보면, '문화환경 격차가 있다'는데 전반적인 동의를 보인 가운데 도심권과 동남권만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의 격차가 없다'라는 응답율이 높게 나왔다. 도심권은

24.3%, 동남권은 19.1%가 이에 해당했다. 그러나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권역에서는 20% 이상의 응답자가 '매우 격차가 있다'라고 응답해 문화환경의 격차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4-17]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권역 간 비교

(단위: %)

권역	격차 없음			격차 있음		
	전혀 격차가 없다	별로 격차가 없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	매우 격차가 있다	
서남권	0.6	11.4	12.1	60.6	27.3	87.9
도심권	4.3	20.0	24.3	61.4	14.3	75.7
동북권	0.9	10.9	11.8	52.7	35.5	88.2
서북권	0.9	9.1	10.0	66.4	23.6	90.0
동남권	0.9	18.2	19.1	67.3	13.6	80.9

서남권 내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서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격차 없음'에, 구로구와 금천구, 양천구 등이 '격차가 있음'에 답했다. 특히 구로구는 격차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3.1%로, 지역 내 문화환경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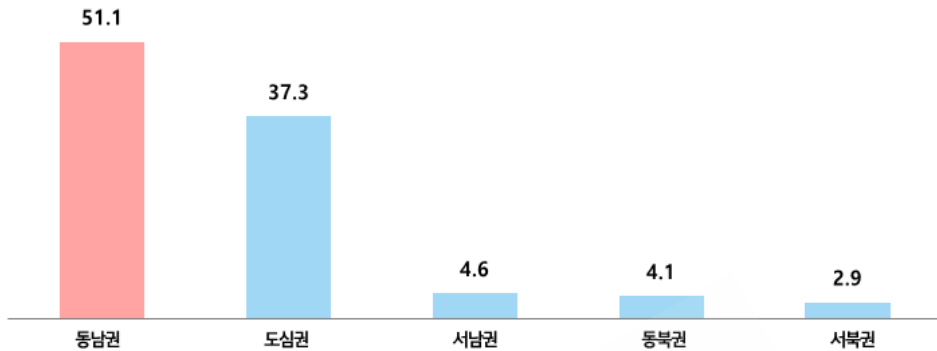
[표 4-18]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단위: 명, %)

자치구	격차 없음			격차 있음		
	전혀 격차가 없다	별로 격차가 없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	매우 격차가 있다	
서남권 평균	0.6	11.4	12.1	60.6	27.3	87.9
동작구	1.0	13.0	14.0	60.0	26.1	86.0
영등포구	0.0	13.8	13.8	60.0	26.2	86.2
관악구	0.0	13.2	13.2	55.8	31.1	86.8
금천구	1.0	6.8	7.8	54.8	37.4	92.2
구로구	0.0	6.9	6.9	58.8	34.3	93.1
강서구	2.0	14.1	16.1	64.3	19.6	83.9
양천구	0.0	9.0	9.0	67.6	23.4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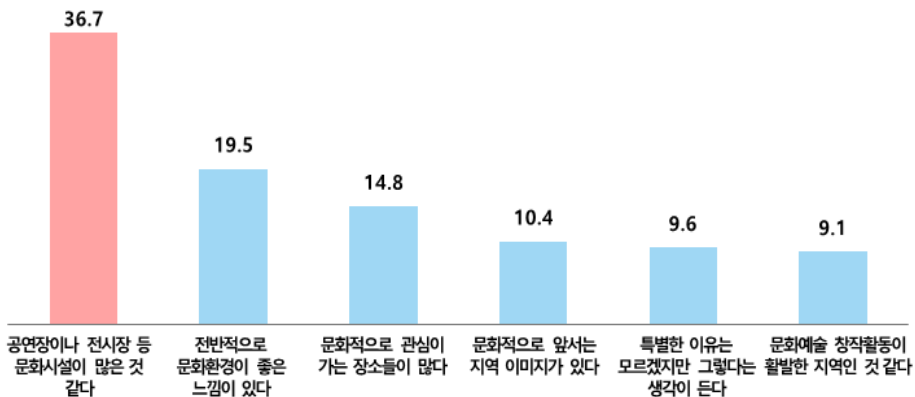
② 문화환경이 잘 갖춰진 권역과 그 이유

그렇다면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진 권역은 어디일까? 서남권 주민들은 ‘동남권이 문화환경이 가장 좋다’는 데에 높은 동의를 나타냈으며, 이어 도심권을 문화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선택했다. 반면 서남권 및 동북권, 서북권은 거의 비슷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림 4-10]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권역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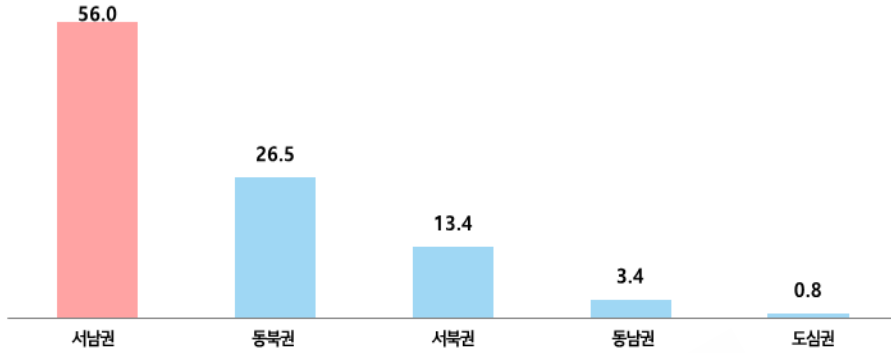
문화환경이 잘 갖춰졌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많은 것’(36.7%)이었다. 이어 ‘전반적 느낌이 그렇다’(19.5%), ‘문화적으로 관심이 가는 장소가 많다’(14.8%), ‘문화적으로 앞서서 지역이미지가 있다’(10.4%) 순으로 나타났고, ‘특별한 이유없이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9.6%)가 그 뒤를 이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9.1%)은 최하위였다.



[그림 4-11]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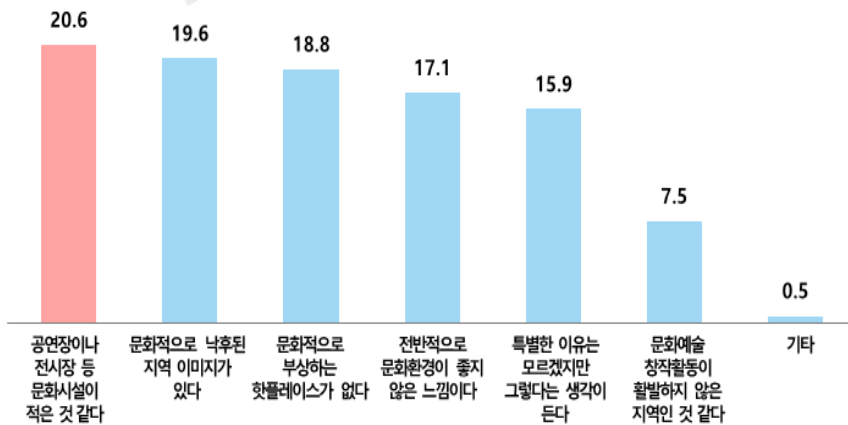
③ 문화환경이 낙후된 권역 및 그 이유

문화환경이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서남권 주민들이 인식하는 권역은 자신이 속한 '서남권'이었다. 응답자의 56%가 서남권이 가장 낙후된 권역이라 응답했다.



[그림 4-12]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권역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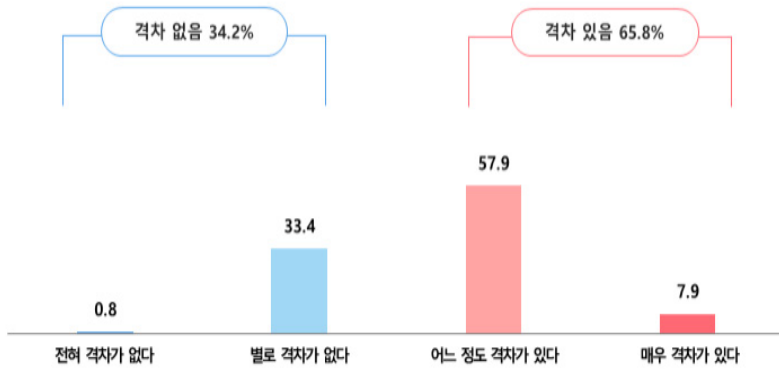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적다'(20.6%)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이미지'(19.6%), '문화적으로 부상하는 지역 부재'(18.8%) 등도 유사하게 지적해 서남권의 이미지가 좋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전반적 문화환경이 좋지 않은 느낌'(17.1%),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다'(15.9%)라는 응답도 많아 주관적 판단이 선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술창작활동'(7.5%)은 긍정도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림 4-13]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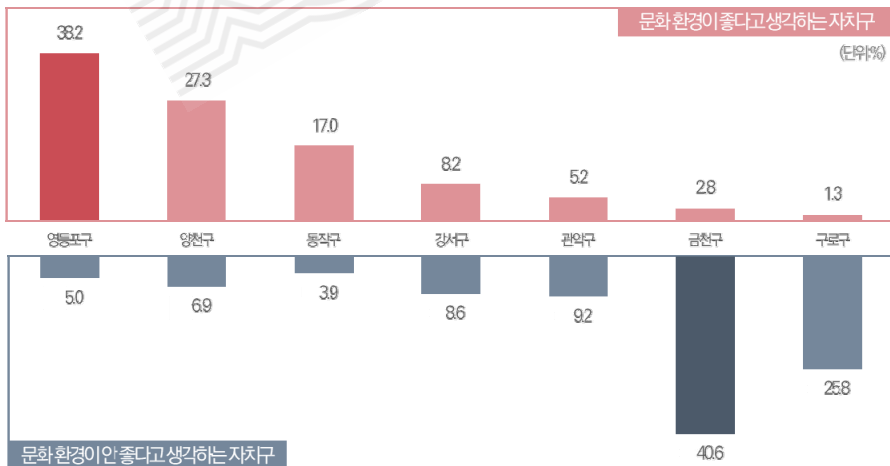
④ 서남권 내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

서남권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를 묻은 결과, 65.8%의 응답자가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없다'라는 응답은 34.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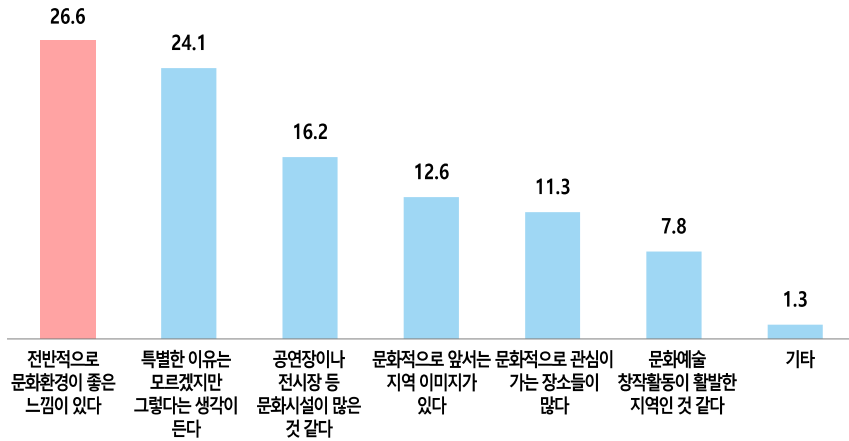
[그림 4-14] 서남권 내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 인식 - 서남권 평균

'문화환경이 좋다'고 생각한 자치구는 영등포구,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자치구는 금천구였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소 모호하다.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많아서'라고 지적한 서울시 문화 격차와 달리, '좋다'는 건 '전반적인 문화환경이 좋은 느낌'이었고, '나쁘다'라고 응답한 이유는 '지역 이미지', '전반적 느낌', '특별한 이유 없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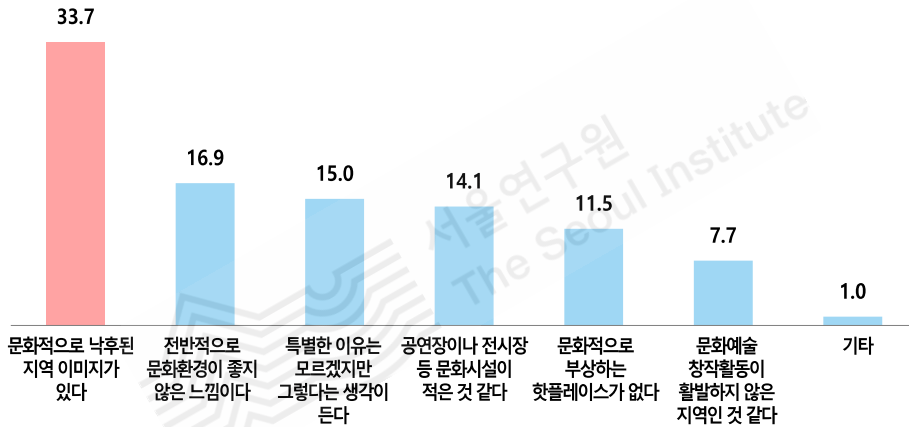


주) n=461(서남권 내 문화환경 격차가 있다는 응답자)

[그림 4-15] 서남권 내 문화환경이 잘 갖춰진 자치구와 낙후된 자치구 - 서남권 평균



[그림 4-16] 서남권 자치구 기준 문화환경이 잘 갖추어졌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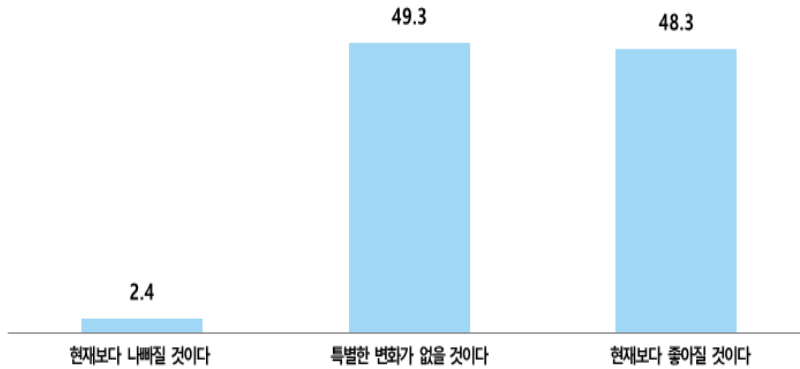


[그림 4-17] 서남권 자치구 기준 문화환경이 낙후되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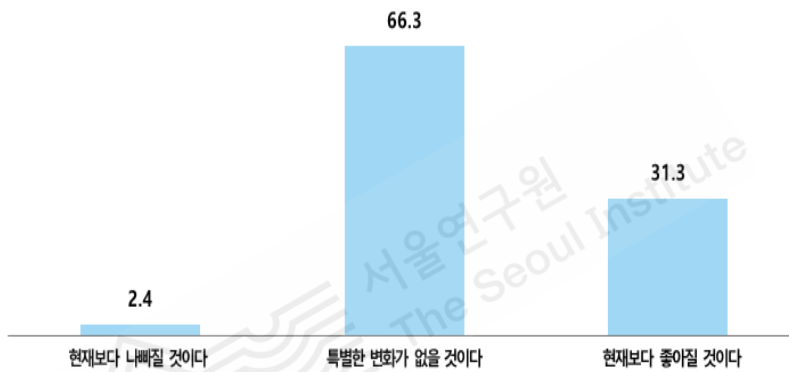
(5) 문화환경 개선 및 발전 방향

① 문화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

문화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서울시 문화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묻은 결과, 48.3%가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하였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49.3%,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2.4%였다. 반면 서남권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31.3%로 낮았으며,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6.3%로 높게 나왔다.



[그림 4-18] 서울시 문화환경 변화 기대감 - 서남권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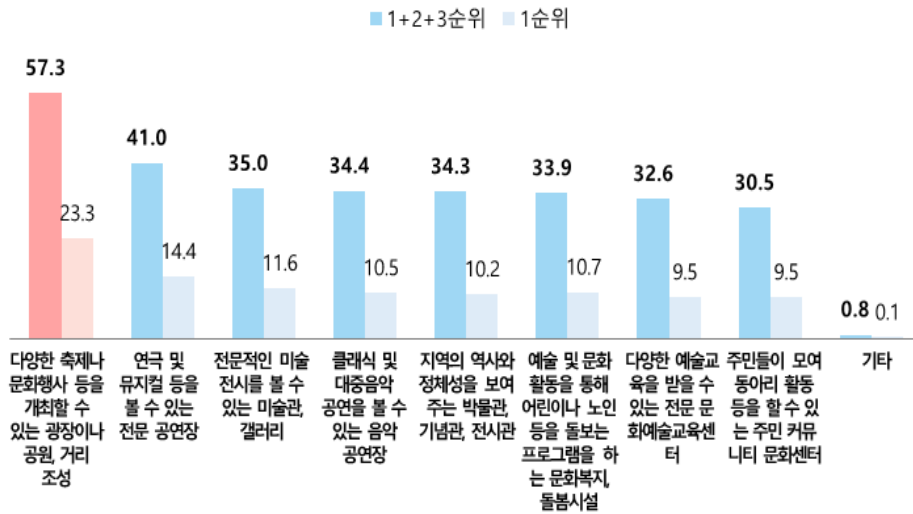


[그림 4-19] 서남권 문화환경 변화 기대감 - 서남권 평균

②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은 '다양한 축제 및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원이나 광장, 거리 등 일상문화 공간'이었다. 해당 문화시설은 1순위 값뿐만 아니라 1~3순위를 합한 값에서도 압도적 1위를 받았다.

이어 연극(뮤지컬)공연장이 2순위로 나왔고, 미술관이나 갤러리, 음악 공연장, 박물관 및 전시관, 문화복지시설, 예술교육 시설, 주민커뮤니티 센터가 비슷한 규모로 3위 그룹을 형성하며 나왔다. 이에 따라 서남권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술시설이 우선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0]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 서남권 평균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유사한 응답 결과를 보였다. 다만 구로구와 영등포구, 강서구 등에서 '광장과 공원, 거리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왔고, 연극공연장은 영등포구, 관악구, 양천구, 강서구에서, '미술관'은 양천구, '음악공연장'은 영등포구 및 관악구, 동작구에서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이어 박물관은 관악구에서 다소 높게 나왔고, 예술교육센터는 금천구에서 높게 나왔다. 나머지는 유사하다.

[표 4-19] 거주하는 자치구 문화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1+2+3순위) - 서남권 자치구 간 비교 (단위: %)

자치구	광장 공원 거리	연극 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음악 공연장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문화복지 돌봄시설	전문 문화예술 교육센터	주민 커뮤니티 문화센터	기타
서남권 평균	57.3	41.0	35.0	34.4	34.3	33.9	32.6	30.5	0.8
동작구	50.3	35.9	32.1	38.0	36.6	35.5	38.7	32.9	0.0
영등포구	62.6	46.5	32.2	39.2	31.6	28.9	26.1	32.9	0.0
관악구	54.2	45.8	30.8	38.1	40.1	29.9	29.0	30.1	2.0
금천구	53.0	34.7	31.1	30.1	37.1	36.2	43.0	34.8	0.0
구로구	63.3	32.0	31.9	31.9	38.8	35.8	36.0	28.2	2.1
강서구	60.1	41.6	38.9	33.0	29.8	36.9	26.3	32.3	1.0
양천구	56.0	45.7	45.1	29.2	28.1	34.9	36.8	24.1	0.0

2_문래동 지역 문화육구

1) 조사개요

이 연구는 서남권 지역 전반의 문화시설뿐만 아니라 서남권 내 예술 활동 거점지역인 문래동 지역의 문화 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2020년부터 문래동 지역의 창작환경 실태를 조사해 온 <영등포활주로>와 협력하여 문래동 예술가의 창작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¹⁸⁾ 조사기간은 2022년 7월 1일~7월 31일까지였으며, 조사방법은 방문면접이었다.

2) 조사결과

(1) 응답자 현황

이번 조사에 응한 총응답자 수는 124명이다. 남자 64명(51.6%), 여자 59명(47.6%) 이었고, 20대 13명(10.5%), 30대 51명(41.2%), 40대 42명(33.8%), 50대 15명(12.1%), 60대 이상 3명(2.4%)이었다. 활동 지역은 문래동 1가 12명(9.7%), 문래동 2가 47명(37.9%), 문래동 3가 46명(37.1%), 문래동 4가 19명(15.3%)으로 나타났다.

[표 4-20] 응답자 구성 -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여성	59	47.6
남성	64	51.6
제3의 성	1	0.8
합계	124	100.0

¹⁸⁾ 영등포구는 2019년부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중 하나로 영등포활주로는 2020년과 2022년에 「문래동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2022년에 추진된 실태조사는 이 연구와 협력하여 설문 설계 등이 진행되었고, 조사는 응답자의 정보 및 공간 현황과 더불어 지역 인식, 젠트리피케이션, 공공시설, 경제활동, 창작지원사업, 코로나19 영향 등 창작환경 실태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이중 문래동 인프라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만 발췌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활주로 외(2022)를 참조하길 바란다.

[표 4-21] 응답자 구성 -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20대	13	10.5
30대	51	41.2
40대	42	33.8
50대	15	12.1
60대 이상	3	2.4
합계	124	100.0

(2) 활동분야

주요한 활동 분야는 전시예술 분야였다. 자신이 관여하는 분야를 모두 응답하도록 한 결과 설치(28.2%)가 가장 많았고, 공예 21.8%, 기획 21.0%, 디자인 17.7%, 기타 16.1%, 회화 14.5%, 공연 14.5% 순이었다.

[표 4-22] 응답자 구성 - 활동분야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설치	35	28.2
공예	27	21.8
기획	26	21.0
디자인	22	17.7
기타	20	16.1
회화	18	14.5
공연	18	14.5
조소	17	13.7
음악	15	12.1
사진	12	9.7
영상	10	8.1
연극	6	4.8
일러스트	6	4.8
영화	5	4.0
건축	4	3.2
문학	3	2.4
전통	3	2.4
무용	1	0.8
합계	223	179.8

주) n=124, 중복응답

문래동 내에서 활동기간은 3년 미만(2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이상~6년 미만 26.7%, 6년 이상~9년 미만이 23.3%, 9년 이상~12년 미만 13.3%로 나타났다. 12년 이상은 8.3%였다.

[표 4-23] 응답자 구성 - 문래동 내 활동기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3년 미만	34	28.4
3년 이상~6년 미만	32	26.7
6년 이상~9년 미만	28	23.3
9년 이상~12년 미만	16	13.3
12년 이상	10	8.3
합계	120	100.0

(3) 공간보유 형태

문래동 내 운영하는 공간은 작업실(74.2%)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교육공간 28.2%, 사무실 27.4%, 전시장 18.5%, 공방 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보유공간 성격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작업실	92	74.2
교육공간	35	28.2
사무실	34	27.4
전시장	23	18.5
공방	22	17.7
연습실/합주실	20	16.1
판매공간	19	15.3
공연장	15	12.1
촬영실	8	6.5
녹음실	4	3.2
기타	6	4.8
합계	278	224.2

주) n=124, 중복응답

보유한 공간의 72.1%가 20평 이하로 공간의 규모는 작았고, 개인(29.0%)보다는 단체나 공동사용 등 여럿이 이용(69.4%)하였다. 그 대부분은 월세(96.1%)였고, 월세는 31만 원~50만 원(33.8%)이 가장 많았다.

[표 4-25] 보유공간 보유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자가	2	2.6
월세	74	96.1
무상 임대	1	1.3
합계	77	100.0

주) 응답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공간은 총 77개임

[표 4-26] 보유공간 운영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개인사용	36	29.0
단체운영	40	32.3
공동사용	46	37.1
기타	2	1.6
합계	124	100.0

[표 4-27] 보유공간 월임차료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30만 원 이하	8	11.8
31만 원~50만 원	23	33.8
51만 원~70만 원	17	25.0
71만 원~100만 원	7	10.3
100만 원 이상	13	19.1
합계	68	100.0

주) 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74개의 공간 중 계약자 본인이 설문에 참여한 수는 68명임

[표 4-28] 보유공간 면적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5명 이하	0	0.0
5명 초과~10명 이하	20	29.4
10명 초과~15명 이하	12	17.7
15명 초과~20명 이하	17	25.0
20명 초과~25명 이하	6	8.8
25명 초과~30명 이하	3	4.4
30명 초과~40명 이하	6	8.8
40명 초과~50명 이하	3	4.4
50명 초과	1	1.5
합계	68	100.0

주) 월 임차료를 지불하는 74개의 공간 중 계약자 본인이 설문에 참여한 수는 68명임

(4) 문래동 내 활동이유

문래동 활동 이유는 '적정한 임차료 및 매매가' 등 경제적 이유였다. 이어 '다양한 예술가와의 교류', '창작활동과의 연계성', '교통 편리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표 4-29] 문래동 내 활동사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3순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적정한 임차료 및 매매가	67	54.0	95	76.6
예술가/활동가 등과의 교류	14	11.3	64	51.6
창작활동 주제와의 연관성	12	9.7	40	32.3
교통의 편리함	9	7.3	53	42.7
활동 분야에서 지역의 인지도	4	3.2	20	16.1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공간 인프라	4	3.2	17	13.7
특화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공급	2	1.6	16	12.9
층수, 면적 등 시설 환경	2	1.6	26	21.0
유동인구, 지역경제 등 인근환경	1	0.8	14	11.3
기타	9	7.3	13	10.5
합계	124	100	358	288.7

(5) 문래동 인식

문래동에 대한 인식은 '창작 측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예술지역으로서 이미지'는 비교적 높게 나왔으나, '창작활동 외 일상적인 생활환경 측면', '관객을 만나고 작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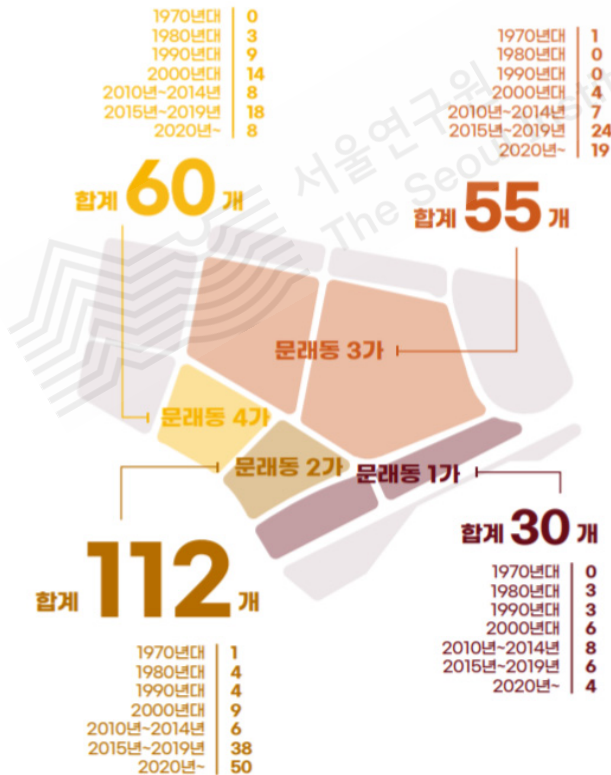
[표 4-30] 문래동 환경 만족도

(단위: 5점 척도)

구분	평균
작업하는 창작활동 측면	3.79
창작활동 외 일상적인 생활환경 측면	3.14
관객을 만나고 작품을 판매하는 측면	2.85
예술지역으로서 이미지 측면	3.49

주1) n=124

주2) 5점 척도 평균값 환산기준: 매우 불만족 1점, 매우 만족 5점



자료: 영등포활주로 외, 2022, 「2022 문래동 창작환경 실태조사」,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p.17

[그림 4-21] 문래동 요식업소 현황(허가연도별)

최근 문래동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2015년 이후의 요식업소가 급증하며 지역 내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이에 이 연구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문래동 입주 후에 나타난 현상과 현재 문래동 내 야기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우선, 문래창작촌 입주 후에 나타난 심경변화를 질문한 결과 ‘창작욕구 자극’과 ‘예술적 성취감’ 등에 동의하는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 개선’에 동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31] 문래동 입주 후 변화

(단위: %)

구분	부정적 변화			긍정적 변화			변화 없음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삶의 질 개선	6.5	12.1	18.5	48.4	15.3	63.7	17.7
창작욕구 충족 및 예술적 자극과 동기부여	1.6	3.2	4.8	51.6	35.5	87.1	8.1
예술적 성취감	0.8	4.0	4.8	54.0	29.0	83.1	12.1

주) n=124

문래동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상업적 공간’ 증가와 더불어 ‘예술공간 이탈’ 및 ‘철공소 이탈’에 대해선 ‘매우 그렇다’란 응답이 매우 높아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갤러리, 공방 등 상업적 예술공간의 증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보여주었다.

[표 4-32] 최근 나타난 문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구분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잘 모르겠음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예술가(공간)가 떠나거나 사라지고 있다.	0.8	8.9	9.7	33.9	34.7	68.5	21.8
철공소가 떠나거나 사라지고 있다.	-	4.8	4.8	40.3	46.0	86.3	8.9
술집, 카페 등 상업적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	-	-	14.5	81.5	96.0	4.0
갤러리, 공방 등 상업적 예술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4.0	23.4	27.4	48.4	11.3	59.7	12.9

주) n=124

지역 내 확산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에 응답자들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창작활동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로 인해 문래동을 이탈하겠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33] 문래동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미치는 영향

(단위: %)

구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영향 없음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예술지역으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8.5	35.7	64.2	19.5	5.7	25.2	10.6
나의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	22.8	36.6	59.4	14.6	4.9	19.5	21.1

주) n=124

[표 4-34]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문래동 이탈 의지

(단위: %)

구분	이탈 의지 없음			이탈 의지 있음		
	전혀 없음	없음		있음	자주 있음	
문래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9.7	41.1	50.8	41.1	8.1	49.2

주) n=124

(6) 문래동 변화 및 발전방향

향후 문래동 변화에 있어서는 '예술가와 철공소가 공존하는 지역'을 희망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현재와 같은 예술지역으로의 지속 발전' 등의 순이었다.

[표 4-35] 문래동의 발전 방향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예술가와 철공소가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55	44.3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공간이 더 많이 확충돼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31	25.0
현재와 같이 예술지역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25	20.2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9	7.3
지역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	2	1.6
카페/식당 등 상업공간이 더 늘어나서 방문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1	0.8
기타	1	0.8
합계	124	100.0

문래동 창작/생활환경 측면에서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은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불균형 해소'였다. 이어 '생활환경 개선', '문화인프라 확장', '작업실 환경개선 및 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6] 문래동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불균형 해소	39	31.5
공공화장실 설치, 가로등 정비, 쓰레기 문제 등 생활환경 개선	25	20.2
공연장/전시장 등 지역 내 문화인프라 확장	25	20.2
작업실 환경개선 및 확충	14	11.3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11	8.9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2	1.6
기타	8	6.5
합계	124	100.0

문래동에 필요한 시설은 '전시장 및 공연장'이었다. 이어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높게 나타났고, 1순위 기준으로는 '공동작업실'이, 1~3순위 기준으로는 '판매공간'이 그 뒤를 이었다.

[표 4-37] 문래동 발전에 필요한 시설

(단위: 명, %)

구분	1순위		1+2+3순위	
	사례 수	비율	사례 수	비율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및 공연장	43	35.0	71	57.7
화장실/가로등 등 생활편의시설	24	19.5	55	44.7
예술가들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13	10.6	51	41.5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실	11	8.9	38	30.9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	7	5.7	21	17.1
예술인을 위한 주거형 생활숙박시설	7	5.7	32	26.0
주차장	7	5.7	25	20.3
작품 혹은 굿즈 등의 2차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	5	4.1	50	40.7
지역 안내센터	4	3.3	16	13.0
기타	2	1.6	4	3.3
합계	123	100.0	363	295.1

05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계획과 방향



- 1_서남권 문화시설 확충계획
- 2_서남권 문화시설 확충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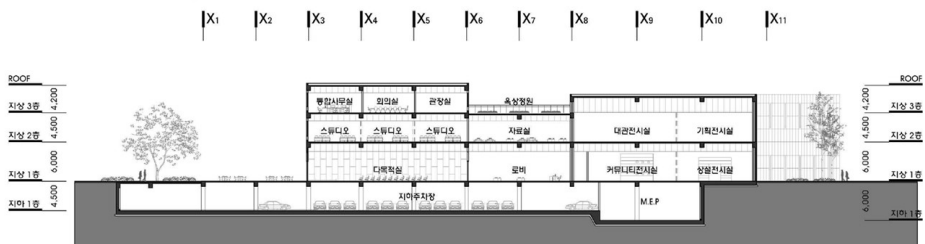
05.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계획과 방향

1_서남권 문화시설 확충계획

1) 서울시 확충계획

그간 서울시는 취약한 서남권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중 상당히 진행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계획 중이거나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서남권의 여건 차원에서 해당 계획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친 <서서울미술관>이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서남권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성에 기반한 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서서울미술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위치는 금천구 독산동 1151 일대이고, 부지면적은 16,331m², 건축 규모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000m²이다(서울시, 2016a). 이 시설에는 전시실 및 수장고, 예술교육을 위한 공간과 극장, 자료실 등이 입주한다.



자료: 서울시(2016a): 169

[그림 5-1] 서서울미술관 조감도

다른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은 <제2세종문화회관>이다.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6번지 자치구 소유 부지에 설립되는 <제2세종문화회관>은 2019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계획에 따르면 <제2세종문화회관>은 부지면적 12,947㎡에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23,182㎡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¹⁹⁾ 여기에는 1,67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250석 규모의 소공연장, 기타 연습실 및 뮤직라이브러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그림 5-2]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표 5-1] 제2세종문화회관 층별 용도

구분	층별 시설
지상5층	대공연장
지상4층	대공연장, 연습실, 문화강의, 영상아카데미
지상3층	대공연장, 관리공간, 산하단체사무실
지상2층	대공연장, 소공연장, 뮤직라이브러리
지상1층	대공연장, 소공연장, 로비
지하1층	주차장, 무대부속시설
지하2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서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여의도가 국가 중심공간이자 서울의 미래성장 중심공간(국제금융업무 등)으로 설정됨에 따라 한강 연접부에 콘서트홀 및 한강 조망이 가능한 플로팅 조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²⁰⁾ 그러나 아직 동 계획은 구상 단계로 여의도 공원 계획 추진 여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서울시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통해 문화다양성 이해의 기반으로 <세계한인박물관>을 포함, <다문화도서관> 및 <통합국제문화원> 등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 2016b: 58). 그러나 현재 이 계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19) 최근 서울시는 부지 적절성을 포함해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제2세종문화회관>의 입지를 고려 중이다.

20)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2년 5월 '여의도 공원 3.0'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2) 서남권 자치구의 문화시설 확충계획

서남권 각 자치구 또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각 자치구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및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 구청장 공약 등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작구²¹⁾

동작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시설 확충계획은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조성, △노량진 6구역 문화복합시설 건립, △노량진 근린공원 내 지하병커 활용,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 △흑석동 빛물펌프장 이전 부지 활용, 문화플랫폼 조성, △생활권별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다.

용양봉저정 역사문화 공간 조성계획은 1989년(정조13년) 이후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누정(樓亭)²²⁾을 활용해 한강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동작구는 저정 주변 일대 사유재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기간은 2017~2022년이다.



자료: 동작구, 2022,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114.

[그림 5-3] 용양봉 전경



자료: 동작구, 2022,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114.

[그림 5-4] 용양봉 정비계획

노량진6구역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은 장승배기로13길 36일대(노량진 6구역)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연면적 13,939㎡) 규모의 공연장을 건

21) 동작구(2022a), 동작구(2022b), 동작구 보도자료(2022. 10. 18.)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22) 용양봉저정은 한강대교 이남, 동작구 노량진로 32길 14-5에 위치한 것으로, 원래 정문과 누정 등 2~3개 건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정면 6칸, 측면 2칸의 초익공계(初翼工系) 양식인 정자 한 동(棟)만 남아 있다.

립하는 계획이다. 여기에 735석 규모의 중공연장과 202석의 소공연장, 전시실, 공연 연습실, 강의실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계획기간은 2019~2026년이다.



자료: 동작구,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p.113; 동작구 보도자료, 2022.3.14., “동작구, 노량진 937석 공연장 갖춘 복합문화시설 건립 첫 발 떤”.

[그림 5-5] 노량진 6구역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안)

노량진 근린공원 내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조성계획은 대방동 350-2 노량진 근린공원 내 있는 지하병커를 활용하여 지하 3층(연면적 1,486.23㎡) 규모의 청소년 문화창의활동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흑석동 빗물펌프장 문화플랫폼 건립 계획은 현 빗물펌프장을 이전한 후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와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한 생활형 SOC시설을 건립하여 수변문화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활권별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은 새롭게 두 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신대방동 686-48에 지하 1층, 지상 4층(1,850㎡) 규모의 <신대방누리도서관>을 건립할 계획(2022.9. 개관)이고, 동작구 사당동 155-4에 지하 3층, 지상 3층(1,660㎡) 규모의 도서관을 신축하여 현재의 <동작샘터도서관>을 확장·이전할 예정이다.

다른 한편 동작구는 사당역에서 이수역에 이르는 지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작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제3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지역에는 연극연습실을 포함한 다양한 공연공간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동작구는 문화정책 수립 및 방향 진단을 위해 <동작문화재단> 주관하에 2019년부터 ‘문화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첫 포럼은 ‘동작문화자원의 활용과 전망’(2019. 9. 27.)이었고, 제2회는 ‘동작구 문화공간의 현황과 가치’(2020. 9. 17.), 제3회는 ‘지역기반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2021. 10. 20.), 제4회에는 ‘지역문화 거

점조성과 네트워크 구축'(2022. 10. 20.) 등을 토론했다.

(2) 영등포구²³⁾

영등포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지정되어 2022년 현재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²⁴⁾ 그만큼 다각적인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문화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다.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주요한 사업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대선제분 문화발전소 조성,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브라이트 여의도 도서관 조성, △마을 도서관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등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은 서울시 사업이다. 다만, 그 부지가 구유지여서 영등포구 또한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가지고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선제분 부지' <문화발전소> 조성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1936년 건립된 대선제분 부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이곳을 제1호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은 영등포구 신길동 4946번지(신길11구역 무상귀속 부지)에 연면적 7,447㎡(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서관에는 ICT체험관 및 북카페, 수영장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브라이트여의도도서관>은 여의도동 31번지(구(舊) MBC 부지) 주택개발사업으로 구청에 기부채납되는 공공기여 시설로 지하 1층(연면적 5,244㎡)을 책 기반의 복합문화 시설로 조성하는 것이다.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은 도보 10분 거리 내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영등포구는 2023년까지 각 동 1개씩 총 18개를 조성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영등포구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영등포구 202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 자율 문화공간'을 5호점까지 확대한 데 이어 2022년 6호점을 여는 등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23) 영등포구(2022a), 영등포구(2022b), 영등포구 보도자료(2022. 7. 21)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24) 사업기간은 2022~2026년이고, 총 투입액은 195억 원이다.

[표 5-2] 영등포구 마을도서관 조성 계획

	대림1동 마을도서관	대림2동 마을도서관	대림3동 마을도서관	생각공장 당산마을도서관
위치	대림로8길 13-1	디지털로37나길 20-8	도림로47길 23	당산동1가 12, 12-1
규모	지상 1층~3층	지상 1층~4층	지하 1층~지상 4층	지상 1층~3층
연면적(㎡)	197.6	299	578.25	862.91
소요예산(백만 원)	1,999	2,546	4,951	350
준공일(예정)	2022. 12.	2023. 4.	2023. 7.	2022. 10.
관련 사진				

자료: 영등포구(2022a): 38

[표 5-3]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현황

구분	시설명	규모(㎡)	개일	비고
1호점	라라랜드(영등포본동)	175.92	2018.6	직영
2호점	언더랜드(여의동)	853.79	2019.4	직영
3호점	선유다락(양평2동)	264.18	2020.10	직영
4호점	문래, 날다(문래동)	66	2020.12	위탁
5호점	대림플레이(대림1동)	310	2021.10	위탁
6호점	당산하이(당산1동)		2022.7	

자료: 영등포구(2022a): 89

(3) 관악구²⁵⁾

관악구는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관악아트홀’ 리모델링, △‘박종철 센터’ 조성 등 문화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문화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에 ‘청년국’을 신설하고, △‘관악청년문화존’, △‘신림동쓰리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문화복지타운〉은 관악구 구암5길 14일대(부지 909.7㎡)에 연면적 3,538.08㎡(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생활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다.

²⁵⁾ 관악구(2022a), 관악구(2022b), 관악구 보도자료(2022. 3. 10.), 관악구 보도자료(2022. 6. 13.)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관악아트홀〉 리모델링은 2002년 개관한 오래된 공연장인 〈관악아트홀〉을 리모델링해 현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연장 및 (가칭)어린이 라운지, 전시실 등이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악구는 대학5길 7 박종철 거리(도덕소공원)에 1980년대 학생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박종철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약 300㎡) 규모로 건립될 기념과 내에는 박종철 유품 전시 및 민주주의 교육(체험)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관악구가 주목하는 것은 청년문화다. 관악구는 2022년 11월 1일 ‘청년문화국’을 신설하고, 청년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문화존’은 온오프라인 상에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관악구는 관악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등록업체(단체) 중 33㎡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고 사업자에게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좌 및 공연,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는 것이다. 현재 16개의 청년문화존이 운영 중이다. ‘신림동 쓰리룸’은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이다. 신림로 신림로 91 건물(3층, 부지 329.26㎡)에 운영하고 있는 ‘신림동 쓰리룸’에는 현재 관악 청년문화공간 및 서울청년센터가 입주하고 있다.

(4) 금천구²⁶⁾

금천구는 △금천구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문화거점 공간 조성, △대표도서관 건립,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서서울미술관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은 금천구 내 예술단체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예술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그 자체로 문화공간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금천구는 금천구 시흥동 920-7(대지면적 259.27㎡)를 매입하여, 연면적 486.05㎡(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예술단체 공동체 공간을 신축하여 공유공간 및 금천문화재단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등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천문화거점공간 조성’은 시흥5동 구(舊) 청사부지(대지 610.3㎡)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1,570㎡)의 건물을 신축하여 금천문화재단이 입주하는 등 금천구의 거점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계획기간은 2022.1.~2024.12.이다. ‘대표도서관’은 금천구 시흥동 996-28(대지 1,063.9㎡) 기아자동차 특별계획구역 기부채납 시설 내에 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금천구는 국비 10억 원 및 구비 74억 원을 투입하

26) 금천구(2022a), 금천구(2022b)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여, 연면적 6,200.33㎡(지하 1층, 지상 11층) 건립하여 키움센터 및 도서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신독산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선정·개발 계획에 따라 구(舊) 노보텔 호텔부지(금천구 독산동 1030-1, 4번지)공공기여시설 내 조성하는 시설이다. 금천구는 이 시설 내 1,100㎡(지상3층 일부)를 활용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서울미술관〉은 살피본 바와 같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금천구는 가능한 이른 시간에 〈서서울미술관〉을 완공하여 지역의 낙후된 문화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5) 구로구²⁷⁾

구로구는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구로 1~4유수지 도서관 건립, △개봉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하늘마루 복합문화시설 조성, △항동 도서관 건립, △서울아트책보고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은 구로구 고척동 63-16 외 6(구로소방서 옆)에 연면적 3,496㎡(지상 4층, 지하 1층)의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 센터에는 블랙박스 공연·전시장 및 코딩과 로봇, IoT 등 과학기술 기반 예술교육을 시행하는 창의융합교육센터, 학습·진로체험센터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은 이전된 KBS 송신소 부지(구로구 개봉동 195-6, 대지면적: 7,032㎡)에 도서관동(지상 4층, 지하 1층, 5,125㎡)과 교육연구동(지상 3층, 지하 1층, 2,738㎡)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구로구는 여기에 거점도서관 및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돌봄공간, 평생학습관 등을 배치하여 서남권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로동 유수지 도서관 건립’은 구로구 1-4에 있는 유수지 상부에 지상 3층(1,400㎡)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개봉동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은 구로구 고척로19길 69-52(부지면적 221㎡)에 지상 4층(연면적 400㎡) 규모의 도서관 및 돌봄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이다. ‘하늘마루복합문화시설’ 조성은 구로2동 390-42에 연면적

27) 구로구(2022a), 구로구(2022b), 구로구(2022c)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1,720㎡(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주민공동체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고, '항동도서관' 건립은 항동 산18-2번지(푸른수목원 내)에 연면적 908㎡(지상 2층)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이다.

구로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기존 문화시설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구로아트벨리 예술극장, 오류문화센터 등 지역 내 8개의 문화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5-4] 구로구 문화시설 환경개선 추진 계획

시설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아트밸리예술극장	지하 3층/지상 6층	8,799	579석 공연장, 소강당, 전시실, 의회
오류문화센터	지상5층	5,564	365석 공연장, 문화원, 어린이집, 노인지회 등
구로구민회관	지하 1층/지상 3층	3,585	531석 공연장, 갤러리구루지, 학습지원센터
신도림오페라하우스	상부/하부	693	533석 공연장(상부 460석, 하부 73석)
꿈나무극장	시설관리공단 4층	424	153석 공연장
다목적예술센터	지상 3층	2,999	유네스코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업무시설
문화철도 959	신도림선상역사	579	키즈카페, 북카페, 예술가창작소, 문화교실
신도림 다락	지상 2층	348	영화감상, 독서, 공연, 쉼터 등 문화휴게공간

(6) 양천구²⁸⁾

양천구는 2022년 3월 '갈산문화센터'를 새로 개관하여 운영하는 한편, 4월에 '청소년 음악창작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다. 양천구는 신규 시설 건립계획 없이 구립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 시설 개선, 양천문화회관 리모델링 등 기존 시설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다른 한편 양천구가 집중하는 것은 '안양천 명소화' 사업이다. 안양천 좌안 양화교에서 구로구 경계까지 구간에 6개의 주제별 공원(나무정원, 체육정원, 가족정원, 생태정원, 활력정원, 건강정원) 등을 조성하는 한편, 목동교 하부에 'MZ스포츠플라자'를 조성하여 지역 명소화 및 문화공간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안양천 명소화'를 위해 양천구는 양천을 공유하는 8개 지방자치단체 간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협약'(2021. 5.)을 체결한 바 있고,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2021. 8.~2022. 2.)을 수립한 상태다.

28) 양천구(2022), 양천구 보도자료(2022. 3. 14.)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자료: 양천구 보도자료(2022. 3. 14.)

[그림 5-6]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안)

(7) 강서구²⁹⁾

강서구는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문화체육에너지 충전센터 건립, △천문우주과학관 건립, △구청사 내 ‘공공문화시설’ 조성 등 다양한 시설건립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마곡지구 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현재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강서구는 화곡동 379-68 외 5필지(대지면적 1,246㎡) 내 연면적 4,240㎡ (지하 2층, 지상 5층)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염창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80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시설을 지하 1층, 지상 6층(연면적 1,115㎡)으로 재건축하여 청소년 여가 및 교육, 휴식 시설로 조성하는 계획이다. ‘문화체육에너지충전센터’는 열악한 생활기반과 문화환경을 가진 공항로 687-15번지 일원에 생활SOC복합화 시설을 조성하여 부족한 문화환경

29) 강서구(2022a), 강서구(2022b), 강서구 보도자료(2022. 10. 25.) 등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천문우주과학관은 방화근린공원 내 천문우주 관찰 및 과학체험 등이 가능한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987.96㎡) 규모의 과학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강서구는 새로운 청사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2026년 신(新)청사 이전과 더불어 현 청사를 공공문화복합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사 이전 시 바로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후 자본을 유치해 공연장 및 영화관, 스포츠시설 등이 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강서구의 계획이다.

끝으로 강서구는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5호선 발산역과 마곡역 사이 약 1km 녹지 구간을 예술 Zone 및 문화 Zone, 생태 IT Zone 등으로 구성하는 등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다.



자료: 강서구(2022a): 59.

[그림 5-7] 마곡문화의 거리 조성안

2_서남권 문화시설 확충전략

1) 기본방향

살펴본 바와 같이 서남권 지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서울미술관> 및 <제2세종문화회관> 등 예술시설을 중심으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고, 각 자치구 또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생활권 문화시설 건립 및 문화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 대부분이 현재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서관이

다. 따라서 전반적인 문화시설 수가 늘어날지 몰라도 서남권 문화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서남권 시민들이 요구하는 일상적 문화환경과 예술기반 시설,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좀 더 종합적인 견지에서 지역의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5-5] 서울시 및 서남권 자치구 문화시설 확충계획 종합

주체	시설명	시설위치	시설유형	비고	
서울시	서서울미술관	독산동 (금천구)	미술관	타당성 조사 완료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영등포구)	공연장	타당성 조사 완료	
	여의도 콘서트홀	여의도동 (영등포구)	공연장	여의도 공원 추진계획 연동	
자치구	동작구	용양봉저정 문화공간 조성	노량진 본동	역사문화 공원	
		문화복합시설 건립	노량진2동	공연장	공공기여 건물 활용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대방동	청소년 문화시설	유휴 지하벙커 활용
		문화플랫폼	흑석동	문화체육시설	생활SOC 빛물 펌프장 활용
		신대방누리도서관	신대방동	도서관	신축
		동작샘터도서관	시당동	도서관	기존도서관 신축 이전
	영등포구	대선제분 문화발전소	신길동	복합시설	제1호 서울시 민간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신길 문화체육도서관	신길동	복합시설	
		브라이트여의도도서관	여의도동	도서관	구(舊) MBC부지 활용
		마을도서관	구 내	도서관	도보 10거리 내 도서관 건립
		청소년 문화공간	구 내	청소년 문화시설	
	관악구	관악문화복지타운	성현동	복합시설	복지관과 문화시설
		관악아트홀	신림동	공연장	기존 시설리모델링
		박종철 센터	신림동	박물관	
		청년문화존	관악구 일대	문화공간	기존 시설 중 지정
	금천구	커뮤니티 공간	시흥동	문화공간	구 내 문화단체 입주 시설
		문화거점 공간	시흥동	문화공간	구(舊) 청사부지 활용
		대표도서관	시흥동	도서관	기아자동차 부지 활용
		청소년문화의 집	독산동	청소년 문화시설	구(舊) 노보텔부지 활용

주체	시설명	시설위치	시설유형	비고
구로구	창의문화예술센터	고척동	복합시설	공연장 및 창의융합교육센터 등
	복합문화타운	개봉동	복합시설	도서관 및 창작공간 구(舊) KBS송신소 부지
	유수지 도서관	구로동	도서관	유수지 상부 활용
	돌봄특화도서관	개봉동	도서관	
	하늘마루복합시설	구로동	도서관	
	향동도서관	향동	도서관	
양천구	갈산문화센터	신정동	공연장	
	청소년음악창작센터	신정동	청소년 시설	
강서구	강서문화예술회관	화곡동	공연장	
	청소년문화의 집	염창동	청소년 문화시설	
	문화체육에너지 충전센터	공항동	복합시설	생활SOC 및 커뮤니티 시설
	천문우주과학관	방화동	과학관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문화시설을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이에 필요 문화시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수요에 기초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앞서 서남권 주민 대상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민들은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과 같은 예술시설’과 더불어 ‘광장, 공원, 거리 등과 같은 일상문화 공간’ 또한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가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 및 환경’을 창출하는 시설이라면, 후자는 지역 내 다양한 예술 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만드는 공간이다. 이에 일상적인 공간의 문화공간화와 더불어 예술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예술시설 건립이 우선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술 수요다. 지적인 바와 같이 서남권에는 예술시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예술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모로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공공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의 김다연(2019) 논문에서 보듯 공공적 차원에서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은 관객 유입력이 크지 않고,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 및 인력에 대한 부담 또한 크다. 따라서 공공적 차원보다는 시장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관련된 문화시설이 설치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이에 필요한 것은 예술생태 전략이다. 즉 즉각적인 예술시설 설치보다 지역 내 예술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관련 문화시설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남권 문래동을 축으로 한 예술 활동 거점지역과 <문래예술공장>, <금천에

술공장) 등 창작공간, 그리고 공구상가를 포함한 대규모 공장부지 및 시설이 있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서남권은 새로운 예술생태를 형성하며 관련된 예술시설이 밀집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³⁰⁾

셋째, 지역 수요에 대한 고려다. 즉, 지역의 역사적·사회적 특성에 맞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서남권은 공단으로서의 역사와 다양한 특화지역이 있다.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성이 표출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청년문화 등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대응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공단 및 지역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나 이주민이나 청년문화, 1인 가구 등에 대응하는 시설 등 서남권에는 다양한 문화성을 표출하는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미래 수요다. 디지털이나 기후위기 등과 같이 현재보다는 미래의 시점에서 필요한 문화시설을 갖춰 시대의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남권의 문화적 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익히 알다시피 서남권은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다. 구로디지털단지(1단지)와 가산디지털단지(2~3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패션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2단지를 제외하곤 모두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영국의 <FACT>나 독일의 <ZKM> 등과 같이 디지털 관련 예술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산업과 관련된 예술생태계를 갖추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5-6] 영국의 FACT와 독일 ZKM

영국 FACT (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독일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 영국 리버풀에 설립 • 디지털 문화를 탐구하는 전시 및 이벤트 공간, 영화관, 실험실, 카페 등으로 구성 → 예술가, 과학자, 지역 커뮤니티 대상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 설립, 1997년 센터 개관 • 독일 카를스루에(Karlsruhe) 위치 • 전시공간, BÄM 창작공간으로 구성 → 일렉트로닉 또는 디지털 바우하우스를 지향하며, 박물관, 연구기관, 작업공간 등을 갖춘 미디어아트 중심 복합공간을 기획·운영

30) 비슷한 사례로 프랑스 파리의 CENTQUATRE-PARIS를 살펴볼 수 있다. 파리는 2018년부터 파리 곳곳에 창작공간을 만들어 예술가의 활동을 돕고자 다목적 예술공간으로 CENTQUATRE-PARIS를 만들었다. CENTQUATRE-PARIS는 총면적 39,000㎡에 열린 참여 공간인 중앙 홀과 예술가 레지던스(artist residencies), 예술작품 전시, 상점, 레스토랑 등으로 구성되어 춤과 서커스, 연극 및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연습하며 교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연간 약 700,000명 정도가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창작과 관람, 예술과 소비가 융합하는 공간을 만들으로써 지역 내 새로운 예술순환 체계를 만드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파리시청 홈페이지; Le CENTQUATRE-PARIS 홈페이지).

영국 FACT (Foundation for Art and Creative Technology)	독일 ZKM Center for Art and M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운영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erwood Art/FACT Digital Fellowship - FACT Together - European Media Artists Residency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과학적 연구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장비를 개발하는 Hertz-Lab,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제작을 위한 공개 워크숍 BÄM(Be a Maker), 미디어 아티스트 양성기관 Institute for Visual Media(IVM) 운영 • 소장작품 컬렉션과 아카이빙 사업 추진 등
	

자료: 양혜원 외(2021): 168~169; 백령 외(2022): 85~101

기후위기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사회의제화 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제조단지로서 서남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순환경제의 거점으로 지역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전략 중 하나다. 예컨대 ‘무대보관소’ 및 ‘의상보관소’ 등 예술분야 순환경제 기반이 되는 시설을 건립할 경우, 서남권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도지역이 될 것이다.

이처럼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시민적·예술적·지역적·미래적 관점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기반해 시설을 확충해야만 서남권은 예술적·문화적 기반을 확충함은 물론 특화된 문화지역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의 확충보다 지역과 미래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5-7] 서남권 문화인프라 확충 방향

고 려 점	시민적 요구	예술적 요구	지역적 요구	미래적 요구
추진방향	시민문화 수요	예술생태계 형성	지역특화시설	미래요구 시설
추진내용	공원, 광장, 거리 등 일상공간의 문화화 예술관람 시설 등 시민의 문화활동 관련 시설	예술창제작 시설 교류협력시설 등 예술인 활동 및 예술시장 형성을 위한 시설	산업단지, 이주민 활동 지역, 1인 가구, 청년 등 지역의 역사 및 인구특성에 맞춘 시설	디지털 예술, 미디어 아트, 기후위기 등 미래의제에 대응한 문화기반 구축
추진효과	접근성 강화	생태성 강화	특화성 강화	선도성 강화

2) 추진전략

이상의 기본방향에 맞춰 주요한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적 접근

서남권은 서울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하나의 생활권과 공통된 특징으로 묶일 수 있는 지역적 근접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각 자치구 단위에서 각각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종합적 문화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주관하에 각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각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문화시설을 산출하고, △이의 목표체계에 따른 확충계획을 수립하며, △기존 문화시설의 활성화 및 △지역과 연계한 클러스터 형성, △시설과 시설을 잇는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남권 문화시설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영국 런던에서 시행하는 「문화기반시설 육성계획」(Cultural Infrastructure Plan)을 주목할 만하다.

세계 창조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런던은 2019년 문화산업 보호 및 관련 시설 육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직·간접적 지원정책을 담은 「문화기반시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새로운 문화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시설 지도 제작 및 제공, 교통접근성 제고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 위기에 직면한 문화시설 회생 지원, 민간 투자 유도, 문화창조산업이 안착할 수 있는 구조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형성 등 종합적인 7가지 실행계획이 제시되어 있다(서울연구원, 2019; Greater London Authority, 2019). 이에 서울시 또한 서남권을 비롯하여 시 차원에서 문화시설을 활성화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표 5-8] '런던 문화기반시설 육성계획': 7가지 실행계획

실행계획	내용
문화기반시설 위치와 종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문화기반시설 지도를 통해 시설 정보 제공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조성 여건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기반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네트워크 신설 또는 연장 등 광역 도시계획 차원에서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대규모 문화기반시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문화공간을 창출할 기회 제공
위기에 직면한 문화기반시설 회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재생 정책과 연계하여 낙후/노후화된 소규모 음악 공연장 등을 지원
투자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기금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문화기반시설 재생, 활성화, 소규모 지역문화 재생 프로젝트, 예술인 지원 등에 사용
문화창조산업이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활성화와 기반 시설 확대를 방해하는 요인(비싼 임대료, 밤문화 사업 허가 획득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문화산업 관련 교육 활동, 네트워크 형성, 가이드 제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산업 이해관계자의 소통과 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위원회 운영 문화기반시설 툴박스(Cultural Infrastructure Toolbox) 서비스에 새로운 문화기반시설 설립에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 제공

자료: 서울연구원(2019): 5-6

(2) 전략적 접근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그것을 어디에 설립할 것이냐'는 것이다. 어디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인구 규모 및 운영 특성, 지역과의 연계 및 클러스터 형성 가능성 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남권처럼 문화기반이 취약하여 문화적인 지역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문화시설 유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 배치를 통해 시설건립의 효과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그 주요한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밀집화 전략이다. 현재 문화자원이 밀집된 지역에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문래창작촌이나 사당동 예술촌 등이 그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문래창작촌의 경우 이 연구를 통해 '공연장 및 전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설립의 효과성 및 지역 생태성 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거점 발굴 전략이다. 즉 새로운 거점을 발굴하여 문화시설을 집중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지역을 형성하거나 확산하는 전략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행정적 협력체계가 만들어진 안양천³¹⁾이나 영등포구가 문화도시를 추진하며 주력하고 있는 도

림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²⁾ 이들 지역은 시설 설치 부지 확보가 유리하고, 지역 접근성이 좋으며, '지천르네상스'라는 시정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전략적 공간을 발굴함으로써 시설 확충 및 지역개선 효과를 만들어 내는 전략도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서남권에는 현재 많은 유휴시설이 있다. 서남권 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논의 결과,³³⁾ 현재 가능한 시설은 <남부도로사업소>, <서부트럭터미널>, <목동야구장>, <관악영어마을>, <싱글빙글센터> 등이다. 이 외에도 <구로문화재단> 주관하에 이미 창작공간³⁴⁾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척공구상가>나 금천구의 <시흥유통상가>도 주목해야 할 공간 중 하나다. 이처럼 지역 내 유휴한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전략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

[표 5-9] 서남권 유휴시설 및 활용방안(서남권 문화재단 관계자 제언)

자치구	대상시설	활용방안(안)
양천구	목동운동장, 서부트럭터미널	목동 방송타운과 연결된 '크리에이터 양성센터'
영등포구	남부도로사업소	디아스포라뮤지엄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창제작공간
동작구	사당동 예술인마을	실험공연장 조성
구로구	고척공구상가	창제작 단지화
	신도림역	예술인레지던시 공간
관악구	도림천	청년문화공간
	낙성대 사로수길 싱글빙글센터	문화공간화
	관악영어마을	문화공간화

31) 안양천은 양천구를 중심으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위해 2021년 1월 12일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21년 8월 경기도 소재 지자체를 포함하여 안양천 명소화 및 고도화를 위한 8개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출범한 바 있다.

32) 영등포구는 2021년 예비 문화도시 운영 후 본 도시로 지정되어 '우정과 확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이 중 핵심적인 사업은 '생태문화사업'과 '기술-예술 융합사업'으로 전자는 안양천과 도림천, 셋강-한강, 선유도-뱃섬-여의도 등을 대상으로, 후자는 '문래동과 당산동, 양평동' 등을 잇는 예술거점 지역이다(영등포구, 2021)

33) 자문회의는 2022년 10월 6일 및 10월 17일 양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참석자는 금천문화재단 오진이 대표, 양천문화재단 김신아 대표,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전대표(이상 10월 6일), 관악문화재단 차민태 대표, 동작문화재단 박상용 팀장, 구로문화재단 허정숙 전(前) 대표(이상 10월 17일) 등이다.

34) 현재 <고척공구상가>에 운영되고 있는 창작공간은 <구로문화창작소>로 현재 5개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구로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uroartsvally.or.kr/>)).

(3) 체계적 접근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중요한 것은 설립만큼이나 운영이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 예산 및 인력 등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 건립 전에 해당 시설을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서남권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확충할 경우, 이를 모두 시가 운영한다거나 자치구의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명확히 해 전략적 차원에서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시는 전반적인 확충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서남권 전체의 문화시설 분포현황 및 활동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가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지역을 상징하는 거점 예술시설 및 대표시설은 직접 건립하거나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각 자치구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산출하고 이의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문화시설이나 지역특화시설을 건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른 한편 시 및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이나 예술가가 운영하는 공간을 지원해 활성화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이들 사업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을 다양화·체계화함으로써 여러 문화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표 5-10] 문화시설 확충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 관계

주체	서울시	자치구
기본 역할	종합적 확충계획 수립 (확충전략 및 구별 역할 제시)	구별 확충계획 수립
사업 역할	자치구 설립 지원	확충사업 추진 (필요시 市 지원요청)
확충 시설	예술시설, 권역 대표시설 서울 문화다양성 보전시설	시민문화시설 지역특화시설

06

종합 및 결론



1_연구결과 종합

2_결론 및 제언

06. 종합 및 결론

1_연구결과 종합

이 연구는 ‘서남권 문화인프라 확충’이라는 시정방향-(시장공약사항) <2-2-7> 아트팩토리 산업문화공간 조성, <2-2-8> 서남권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조성-에 맞춰 이루어졌다. 연구목적은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를 하는 것이었고, 연구내용은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 △서남권 주민 문화욕구 및 문래동 지역예술가 요구사항, △서남권 자치구의 문화시설 확충계획 등이었다.

연구 결과 서남권의 문화인프라 여건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 당 문화시설 수는 서울시 평균 2.05에 못 미쳤고, 면적 1Km² 당 문화시설 수 또한 서울시 평균 3.25에 비해 낮은 2.86를 기록했다. 더구나 많은 시설이 ‘작은 도서관’이었다.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도서관은 서남권 전체 문화시설의 81.9%를 차지한다. 때문에 반대급부로 예술시설이 부족하다. 공연장은 서울시 전체 8.5%, 박물관·미술관도 6.7%에 불과했다.

또한 서남권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 예술시설 또한 부족했다. 대중적인 공연장 및 예술시설은 <디큐브아트센터>와 <LG아트센터 서울>이 전부다. 공연장이나 전시시설 대부분은 공공적 차원에서 자치구에서 건립·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등이다. 더불어 서남권의 역사와 사회적 특성을 보여주는 문화시설도 부족해 공업단지로서의 역사, 지역에 넓게 분포된 이주민, 1인 가구와 청년문화 등과 관련된 시설은 거의 없거나 부족한 상태였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문화 여건 전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우선 예술 및 문화활동 측면에서는 다른 권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권역에 비해 영화관람이 높고 예술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 기초적인 예술 활동이 낮았다. 주민

들의 ‘문화적 삶의 질 만족도’는 50.7%로,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54.4%)보다 낮게 나타났고, 생활여건 만족도에서 문화환경은 42.8%를 기록, 교통환경(65.0%), 생활환경(58.8%), 교육환경(45.1%), 전반적 지역환경(53.9%) 등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문화적 발전 가능성’ 및 ‘주민문화활동 개선 노력’도 다른 권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자신의 구가 자랑스럽다’라는 응답 또한 낮았으며, 서남권 주민 스스로 서남권을 문화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 지적하여 서남권 문화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문화시설은 ‘광장이나 거리, 공원 등 일상공간의 문화화’였다. 이어 ‘전문공연장’, ‘미술관’, ‘갤러리’, ‘박물관’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일상공간 문화화와 더불어 전문적 예술시설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필요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자치구가 현재에도 많은 도서관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하려 노력하고 있어 주민들의 요구하는 시설이나 서남권의 현재 여건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시설로 계획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전반적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남권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남권의 문화를 선도하는 예술 지역 발굴 및 서남권의 문화적 상징성과 역사성, 시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확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각 자치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추진할 서울시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_ 결론과 제언

서남권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인 확충 방향 및 그에 따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서남권은 생활권 문화시설부터 예술시설, 지역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포용하는 문화시설 등이 부족하다. 더불어 이주민, 1인 가구, 청년 등 서남권의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시설도 필요하다. 이런 여건에서 모든 시설을 확충하려 나서려 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현재와 같이 소규모 문화시설만 확충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 시와 자치구의 역할을 분담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각 개별적 단위에서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의 목표 및 전략적 수행체계에 따라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동 종합계획에는 ‘어느 시설을 언제 확충할 것인가’라는 시설유형 및 확충 시기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 시설을 어디에 건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라는 지역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서남권 전반의 문화환경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시설계획만 있으면 서남권의 현재 여건을 개선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의 주요한 일은 서남권 전체 및 각 자치구의 확충 목표를 선정하는 것 외에 활용 가능한 시설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제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남권에 발생하고 있는 공장 부지나 시 또는 정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유휴시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등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많다. 이에 구체적인 장소 또는 생활권별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활용 가능한 시설이나 부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적극적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라도삼 외(2016) 등 이미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이를 현행화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이와 같은 문화시설 확충계획을 서남권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걸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도심권과 동남권을 제외한 동북권 및 서북권 또한 좋지 않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남권 외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 확충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서울시 전체에 필요한 시설을 추계하고, 각 권역에 필요한 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지역특화 및 클러스터 형성 등을 추구해야만 시민의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더불어 다양한 예술의 활동성을 제고, 서울 문화환경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남권의 문화환경은 좋지 않다. 특히 예술 접근성 및 지역의 고유성,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시설은 부족하다. 그러나 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 지역적 여건도 나쁘지 않아 전략적 목표체계에 따라 문화시설을 확충하면 그 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에 다른 무엇보다 전략적 행동이 필요하다. 전략적 계획하에 서남권의 여건을 개선하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다연, 2019, “문화권 제고를 위한 서울 서남권 공연장 현황 연구”, 홍익대 공연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세훈, 2001, 「문화기반시설 중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 김효정, 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동작문화재단, 2021, 「UNDERGROUND 사당」.
- 라도삼·신슬기, 2004, 「서울시 문화시설 확충방안 연구 -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라도삼 외, 2016, 「서울시 문화시설 현황 및 배치전략」, 서울연구원.
- 라도삼·이정현, 2017, 「서울문화지도를 그린다」, 서울연구원.
- 라도삼 외, 2022, 「서울시 문화분야 전략계획 수립」, 서울시.
- 문화체육관광부, 2004, “문화기반시설 확충계획 2005~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공문화시설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융성위원회, 2014, 「문화시설 배치 및 기능조정 적용방안 연구」.
- 백령 외, 2022, 「아트&테크 창작지원센터 사례조사 및 적용방안 연구」, 서울문화재단.
- 변미리 외, 2021, 「2024 서울행복플랜-시민행복 실태조사 및 전략과제 수립」, 서울시.
- 변미리 외, 2022, 「2021 서울서베이」, 서울시.
- 서울시, 2016a, 「서서울미술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
- 서울시, 2016b,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 서울시, 2021, 「2021 서울통계연보」.
- 서울연구원, 2019, “문화기반시설 보호·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도시동향」, 제453호, 정기성 해외통신원.
- 서초구, 2019,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 양혜원 외, 2015,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양혜원 외, 2021, 「아트 컬처랩(Art-Culture Lab) 조성 기본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영등포활주로 외, 2020, 「2020 문래동 창작환경 실태조사」,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 영등포활주로 외, 2022, 「2022 문래동 창작환경 실태조사」, 서울시영등포구영등포문화재단.
- 이원태, 2004, 「전국문화기반시설 최소기준 수립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지운·최승담, 2018, “서울시 문화기반시설 공간분포특성 분석-인구와 이용밀도 분포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30(4): 61~80.
- 홍미영·이제원·김학진, 2015, “서울시 생활권별 공공시설의 공급 불균형 분석”, 「도시설계」, 16(5): 161~176.
- 통계청, 2021, 「인구총조사」.
- 강서구, 2022a, “2022년 주요업무계획”.
- 강서구, 2022b,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관악구, 2022a, “2022년 주요업무계획”.
- 관악구, 2022b,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구로구, 2022a, “2022년 주요업무계획”.
- 구로구, 2022b,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구로구, 2022c,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 금천구, 2022a,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금천구, 2022b,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 동작구, 2022a, “2022년 주요업무계획”.
- 동작구, 2022b,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2004, “문화기반시설 확충 계획 2005~2011”.
- 문화체육관광부, 2012, “공공문화시설 건립·운영 가이드라인”.
- 양천구, 2022,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영등포구, 2021, “우정과 현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문화도시 조성계획”
- 영등포구, 2022a, “2022 주요업무계획”.
- 영등포구, 2022b,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강서구 보도자료, 2022. 10. 25., “‘민선8기 김태우표’ 구청사 활용 계획”.
- 관악구 보도자료, 2022. 3. 10., “관악구, 온택트(Ontact) 청년문화존 운영사업 공모”.
- 관악구 보도자료, 2022. 6. 13., “관악구, 청년 문화존(Zone)으로 청년 모임 공간 확대”.
- 동작구 보도자료, 2022. 10. 18., “동작형 지역 문화거점 조성 위한 ‘문화정책포럼’ 개최”.
- 양천구 보도자료, 2022. 3. 14., “양천구, ‘안양천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 영등포구 보도자료, 2022. 7. 21., “영등포 청소년자율문화공간 6호점 ‘당산하이(Hi)’”.

Toregas, C., ReVelle, C., and Swain, R., 1974, “Technical Note—Reply to Rao’s Note on the Location of Emergency Service Facilities”, *Operations Research*, 22(6).

Teitz, M. B., 1968, “Toward a Theory of Urban Public Facility Location”, *Papers in Regional Science*, 21(1): 35~51.

ReVelle, C., Toregas, C., Swain, R., and Bergman, L., 1971, “The Location of Emergency Service Facilities”, *Operations Research*, 19(6): 1363~1373.

Hakimi, S. L., 1964, “Optimum locations of switching centers and the absolute centers and medians of a graph”, *Operations Research*, 12(3): 450~459.

Greater London Authority, 2019, *Cultural Infrastructure Plan – A CALL TO ACTION*.

- 강서구청 (<https://www.gangseo.seoul.kr/>)
- 강서문화원 (<http://www.kcc2000.or.kr/>)
- 관악구청 (<https://www.gwanak.go.kr/>)
- 관악문화재단 (<https://www.gfac.or.kr/>)
- 구로구청 (<https://www.guro.go.kr/>)
- 구로문화재단 (<https://www.guroartsvalley.or.kr/>)
- 금천구청 (<https://www.geumcheon.go.kr/>)
- 금천문화재단 (<https://gcfac.or.kr/>)
- 동작구청 (<https://www.dongjak.go.kr/>)
- 동작문화재단 (<https://www.idfac.or.kr/>)
-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kor/>)

서울문화재단 (<https://www.sfac.or.kr/>)
양천구청 (<https://www.yangcheon.go.kr/>)
양천문화재단 (<https://yfac.kr/main/>)
영등포구청 (<https://www.ydp.go.kr/>)
영등포문화재단 (<https://www.ydpcf.or.kr/>)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https://www.kobis.or.kr/>)
작은도서관 (<https://www.smalllibrary.org/>)
파리시청 (<https://www.paris.fr/>)
FACT (<https://www.fact.co.uk/>)
Le CENTQUATRE-PARIS (<https://www.104.fr/>)

1_설문지 - 서울시민 대상

서울시민 문화환경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입니다.

본조사는 문화환경과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집하여, 향후 문화정책 수립 방향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 관리되고 있으며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자료처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08월

설문 대상 확인을 위한 선정 질문입니다

SQ1. 귀하는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 | | | | | |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 6. 대전 | 7. 울산 | 8. 세종 | 9. 경기 | 10. 강원 |
| 11. 충북 | 12. 충남 | 13. 전북 | 14. 전남 | 15. 경북 |
| 16. 경남 | 17. 제주 | | | |

SQ1-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 1. 강남구 | 2. 강동구 | 3. 강북구 | 4. 강서구 | 5. 관악구 |
| 6. 광진구 | 7. 구로구 | 8. 금천구 | 9. 노원구 | 10. 도봉구 |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

SQ1-2. 권역 (자동선택)

1.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2. 동북권(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3. 동남권(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4. 서북권(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5. 서남권(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SQ2. 귀하의 출생연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_____	년
-------	---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3. 그 외

A. 문화에 대한 관심과 활동 형태

AQ1. 귀하께서 평소 가장 좋아하시거나 즐겨하시는 문화활동을 우선순위로 3가지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 |
|-------------------|---------------|----------------|
| 1. 연극 관람 | 2. 뮤지컬 관람 | 3. 클래식 관람 |
| 4. 대중음악 관람 | 5. 전통예술 관람 | 6. 무용 관람 |
| 7. 미술 관람 | 8. 역사 문화유산 관람 | 9. 영화 관람 |
| 10. 스포츠 경기 관람 | 11. 축제 참여 | 12.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 1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 | 14. 독서 활동 | |

AQ2-1. 2018년 7월 1일 이후,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경험하신 것(직접 가서 보거나 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 | | | |
|------------|---------------|-----------|
| 1. 연극 관람 | 2. 뮤지컬 관람 | 3. 클래식 관람 |
| 4. 대중음악 관람 | 5. 전통예술 관람 | 6. 무용 관람 |
| 7. 미술 관람 | 8. 역사 문화유산 관람 | 9. 영화 관람 |

- 10. 스포츠 경기 관람 11. 축제 참여 12.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 13.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수강 14. 도서관 이용

AQ2-2. [AQ2-1 선택 응답]을/를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셨나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남구 2. 강동구 3. 강북구 4. 강서구 5. 관악구
- 6. 광진구 7. 구로구 8. 금천구 9. 노원구 10. 도봉구
- 11. 동대문구 12. 동작구 13. 마포구 14. 서대문구 15. 서초구
- 16. 성동구 17. 성북구 18. 송파구 19. 양천구 20. 영등포구
- 21. 용산구 22. 은평구 23. 종로구 24. 중구 25. 중랑구

AQ3-1. 2018년 7월 1일 이후 거주하고 계신 OO구에서 직접 경험한 오프라인 문화시설/공간을 모두 선택하여 주세요.

- 1. OO구 문화예술회관(아트센터)
- 2. OO구 (문화)체육센터
- 3. OO구 청소년 문화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 4. OO구 주민자치센터(생활문화프로그램참여)
- 5. OO구 사회복지관(생활문화프로그램 참여)
- 6. OO구 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
- 7. OO구 지방문화원
- 8. OO구 문화축제

AQ3-2. 2018년 7월 1일 이후 경험한 오프라인 문화시설/공간에 대해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구분		해당 시설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OO구 문화예술회관 (아트센터)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2) OO구 (문화)체육센터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구분		해당 시설 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OO구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4) OO구 주민자치센터 (생활문화프로그 램 참여)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5) OO구 사회복지관 (생활문화프로그 램 참여)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6) OO구 도서관 (작은도서관 포함)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7) OO구 지방문화원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8) OO구 문화축제	쉽게 방문할 수 있다	1	2	3	4	5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다	1	2	3	4	5
	운영 프로그램이 마음에 든다	1	2	3	4	5

AQ4. 평소 문화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삶에 있어 문화활동은 중요하다.	1	2	3	4	5
2) 나는 시간이 없어도 문화활동은 한다	1	2	3	4	5
3) 나는 돈이 없어도 문화활동은 한다	1	2	3	4	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4) 나는 동반자 없이 혼자서도 문화활동을 한다	1	2	3	4	5
5) 나는 더 알찬 문화활동을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용의가 있다.	1	2	3	4	5
6) 나는 문화활동을 위해 현재보다 시간과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	1	2	3	4	5

AQ5. 귀하가 느끼는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항목에 만족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전반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1	2	3	4	5
2) 문화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1	2	3	4	5
3) 경제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1	2	3	4	5
4) 내가 사는 지역의 질 측면에서	1	2	3	4	5
5) 이웃과 관계 면에서	1	2	3	4	5

B. OO구의 여건과 문화환경 진단

BQ1. 귀하가 거주하는 OO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주로 내가 거주하는 OO구에서 소비활동을 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에 대한 애정이 깊다.	1	2	3	4	5
4) 나는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거주하는 OO구를 떠날 생각이 없다.	1	2	3	4	5
5) 나는 나의 지인에게 여건이 되면 내가 거주하는 OO구로 이사오길 권하고 싶다	1	2	3	4	5

BQ2. 귀하가 거주하는 OO구 생활 여건에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만족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 한다	다소 불만족 한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환경	1	2	3	4	5
2) 교통환경	1	2	3	4	5
3) 교육환경	1	2	3	4	5
4) 생활환경	1	2	3	4	5
5) 전반적 지역 환경	1	2	3	4	5

BQ3. 귀하가 거주하는 OO구의 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의 역사를 알고 있다.	1	2	3	4	5
2)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에 어떤 문화시설이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에 어떤 공연과 전시가 개최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에 어떤 축제가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거주하는 OO구 내 문화활동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는 편이다.	1	2	3	4	5
6) 나는 문화활동을 할 때, 내가 거주하는 OO구의 문화시설을 주로 이용한다.	1	2	3	4	5

BQ4. 귀하가 거주하는 OO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우리 OO구의 문화는 역사가 깊다.	1	2	3	4	5
2) 우리 OO구의 문화는 고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1	2	3	4	5
3) 우리 OO구의 문화는 자랑스럽다.	1	2	3	4	5
4) 우리 OO구는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갖고 있다.	1	2	3	4	5
5) 우리 OO구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	2	3	4	5
6) 우리 OO구는 문화적으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	2	3	4	5
7) 우리 OO구는 주민들의 문화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BQ5. 귀하께서는 평소 거주하는 OO구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문화시설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제시된 항목 중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설을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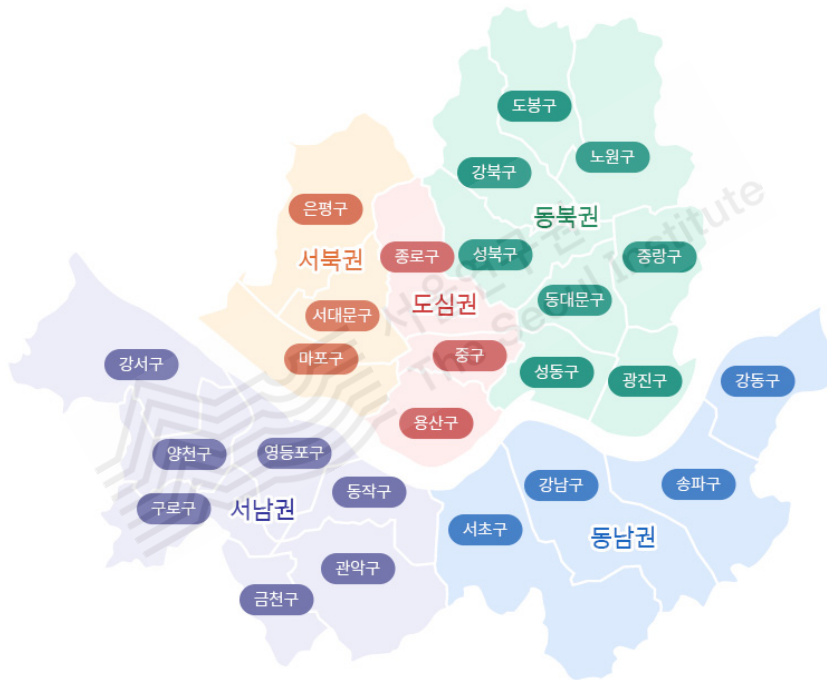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연극 및 뮤지컬 등을 볼 수 있는 전문 공연장
2. 클래식 및 대중음악 공연을 볼 수 있는 음악 공연장
3. 전문적인 미술 전시를 볼 수 있는 미술관, 갤러리
4. 다양한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문 문화예술교육센터
5. 주민들이 모여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문화센터
6.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박물관, 기념관, 전시관
7. 다양한 축제나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광장이나 공원, 거리 조성
8. 예술 및 문화활동을 통해 어린이나 노인 등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하는 문화복지, 돌봄시설
9. 기타()

C. 서울 전반 및 권역별 문화환경 진단

※ 서울은 25개의 자치구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대 권역을 표시한 아래 그림을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동남권: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북권: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남권: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CQ1. 5대 권역을 기준으로 평소 서울 권역 간 문화환경 격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격차가 없다 (☞ CQ6로 이동)
2. 별로 격차가 없다 (☞ CQ6로 이동)
3.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 (☞ CQ2로 이동)
4. 매우 격차가 있다 (☞ CQ2로 이동)

CQ2. (CQ1의 3, 4 응답자) 문화환경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권역은 어디입니까? 다음 권역 중 한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2. 동북권(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3. 동남권(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4. 서북권(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5. 서남권(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CQ3. (CQ1의 3, 4 응답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많은 것 같다
2.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것 같다
3. 문화적으로 관심이 가는 장소들이 많다
4. 전반적으로 문화환경이 좋은 느낌이 있다
5. 문화적으로 앞서는 지역 이미지가 있다
6.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7. 기타()

CQ4. (CQ1의 3, 4 응답자) 문화환경이 가장 낙후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권역은 어디입니까? 다음 권역 중 한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2. 동북권(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 성동구)
3. 동남권(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4. 서북권(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5. 서남권(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CQ5. (CQ1의 3, 4 응답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적은 것 같다
2.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
3. 문화적으로 부상하는 핫플레이스가 없다
4. 전반적으로 문화환경이 좋지 않은 느낌이다
5.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있다

6.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7. 기타()

CQ6.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OO권(○○구, ○○구, ○○구, ○○구, ○○구)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열악하다	다소 열악하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좋다	매우 좋다
1) 연극이나 뮤지컬 등을 보는 공연 활동 측면	1	2	3	4	5
2) 클래식이나 대중음악을 듣는 음악 활동 측면	1	2	3	4	5
3) 미술을 감상하는 미술 활동 측면	1	2	3	4	5
4) 다양한 축제에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 활동 측면	1	2	3	4	5
5) 다양한 문화예술을 교육을 받는 교육환경 측면	1	2	3	4	5
6)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역사보전 측면	1	2	3	4	5
7) 문화적으로 특화된 장소나 지역을 발굴하고 보전육성하는 측면	1	2	3	4	5
8) 시민이 문화활동을 하고 즐기는 문화시설 및 인프라 확충 측면	1	2	3	4	5
9) 거리, 광장, 공원 등 일상 공간의 문화 공간화 측면	1	2	3	4	5
10) 자연생태의 보전 및 이를 활용한 문화활동 측면	1	2	3	4	5
11) 문화적인 지역 이미지 측면	1	2	3	4	5

CQ7. 앞으로 귀하가 거주하는 권역의 문화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 2.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

CQ8. 앞으로 서울의 문화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 2.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

D. 서남권 응답자만(SQ1-2 5번 응답자만)

DQ1.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OO구를 대표하는 장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남권은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7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DQ2. 귀하께서는 서남권 내 7개 자치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치구 간 문화환경 격차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격차가 없다 (☞ZQ1로 이동)
- 2. 별로 격차가 없다 (☞ZQ1로 이동)
- 3.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 (☞DQ3로 이동)
- 4. 매우 격차가 있다 (☞DQ3로 이동)

DQ3. (DQ1의 3, 4 응답자) 문화환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다음 자치구 중 한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강서구 | 2. 구로구 | 3. 관악구 | 4. 금천구 |
| 5. 동작구 | 6. 양천구 | 7. 영등포구 | |

DQ4.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많은 것 같다
2.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발한 지역인 것 같다
3. 문화적으로 관심이 가는 장소들이 많다
4. 전반적으로 문화환경이 좋은 느낌이 있다
5.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지역 이미지가 있다
6.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7. 기타()

DQ5. 문화환경이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자치구는 어디입니까? 다음 자치구 중 한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1. 강서구 | 2. 구로구 | 3. 관악구 | 4. 금천구 |
| 5. 동작구 | 6. 양천구 | 7. 영등포구 | |

DQ6.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적은 것 같다
2. 문화예술 창작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
3. 문화적으로 부상하는 핫플레이스가 없다
4. 전반적으로 문화환경이 좋지 않은 느낌이다
5.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있다
6.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
7. 기타()

마지막 응답자 인구통계 특성 관련 질문입니다

ZQ1. 귀하는 현 자치구에서 얼마나 거주하셨습니다? 현 자치구에서의 총 거주기간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년 ()개월

ZQ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 대학원 재학 및 졸업

ZQ3.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자영업/개인사업 | 2. 판매/영업/서비스직 | 3. 생산/기능/노무직 |
| 4. 사무/관리/전문직 | 5. 전업주부 | 6. 학생 |
| 7. 은퇴 및 무직 | 8. 기타 () | |

ZQ4. 귀하께서는 장애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ZQ5.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2. 기혼(동거 포함) 3. 별거/이혼/사별

ZQ6.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명 2. 2명 3. 3명 4. 4명 이상

ZQ7. (ZQ6 2, 3, 4 응답자) 함께 사는 가족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으면 모두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미취학, 초등학생 자녀 | 2. 70세 이상 어르신 |
| 3.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 | 4. 해당 없음 |

ZQ8.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세후)은 얼마입니까? 임대소득,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200만 원 미만 | 2. 200만 원 ~ 400만 원 미만 |
| 3. 400만 원 ~ 600만 원 미만 | 4. 600만 원 ~ 700만 원 미만 |
| 5. 800만 원 ~ 1,000만 원 미만 | 6. 1,000만 원 이상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_설문지 - 문래동 예술가 대상

- 2022년 문래동 창작환경 실태조사 -

영등포 활주로는 문래동 예술생태계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2020년 진행된 실태조사와 연속성을 가지며,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술생태계 변화추이 확인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등포 활주로는 2022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영등포구)의 기획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팀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명		활동 거점 주소	해당 항목에 체크 문래동1가 • 문래동2가 • 문래동3가 • 문래동4가
단체 (공간)명		이메일	
연락처			
<p>【 개인정보 수집 목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2020년~2022년)>의 운영과정에서 예술생태계 변화추이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통계 자료 결과 공유 <p>【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문화재단과 영등포 활주로는 위 업무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p>【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사업(2020년~2022년) 완료시까지 개인정보를 보존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 및 이용기간: 사업 종료시까지 (2022년)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필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선택] 2022년 본 사업에 선정되어 지도를 제작하는 <문래어스(MULLAE US): 우리의 문래를 담은 지도> 프로젝트에 공간정보 제공을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본 설문조사는 2016년, 2019년, 2020년 영등포구에서 실시된 실태조사를 참조하였고, 서울연구원과 협력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통계자료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예술생태계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6년, 2020년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범주와 동일하게 실태조사 대상지역을 '문래동 1~4가'로 한정하였습니다.

일반사항

성 별	
출생년도	
활동분야 (※복수응답 가능)	① 회화 ② 조소 ③ 설치 ④ 공예 ⑤ 공연 ⑥ 음악 ⑦ 무용 ⑧ 문학 ⑨ 기획 ⑩ 전통 ⑪ 사진 ⑫ 영상 ⑬ 영화 ⑭ 연극 ⑮ 건축 ⑯ 디자인 ⑰ 일러스트 ⑱ 만화 ⑲ 기타
대표 분야	번
현 거주지	() 시/도 () 시/군/구
영등포구 내 예술인 단체 또는 협회 가입 여부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기타 ()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등록 여부	① 등록 ② 등록대기 ③ 미등록 ④ 만료
총 활동기간	년 또는 개월
문래창작촌에서 총 활동기간	년 또는 개월

공간 관련 사항

1. 공간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작업실 ② 연습실·합주실 ③ 전시장 ④ 공연장
- ⑤ 촬영실 ⑥ 녹음실 ⑦ 방송실 ⑧ 공방
- ⑨ 사무실 ⑩ 교육공간 ⑪ 판매 공간(아트샵, 굿즈샵 등)
- ⑫ 기타 ()

1-1. 위의 복수응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한 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

2. 공간 활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해당항목을 우선순위로 네모상자에 숫자로 기입해주시시오

<input type="text"/>	창작(작업실/연습실 용도 등)	<input type="text"/>	발표(전시, 공연, 상영회 등)	<input type="text"/>	교육(워크숍, 클래스 등)
<input type="text"/>	교류(네트워킹 등)	<input type="text"/>	주거·숙식	<input type="text"/>	판매
<input type="text"/>	대관	<input type="text"/>	기타 ()		

3. 현재 사용 중인 공간에서 활동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3년 미만 ② 3년 이상~6년 미만 ③ 6년 이상~9년 미만
- ④ 9년 이상~12년 미만 ⑤ 12년 이상

4. 현재 사용 중인 공간 보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무상 임대
- ⑤ 기타 () ※단순 근무지인 경우 등

5.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의 운영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개인사용 ② 단체운영 ③ 공동사용(인) ④ 기타()

5-1. 공동사용인 경우 개인 월 부담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_____ 만 원 ② 기타 ()

6. 공간을 월 임대한 경우 임차료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 본인만 체크해주세요 (관리비 제외)

- ① 30만 원 이하 ② 31만 원~50만 원 ③ 51만 원~70만 원 ④ 71만 원~100만 원
- ⑤ 100만 원 이상 ⑥ 기타 ()

7.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의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 대략 “ ” 평 또는 “ ” m²

문래창작촌 관련 문항

8. 문래창작촌에 공간을 마련(이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적절한 임차료 및 매매가 ② 창작활동 주제와의 연관성
- ③ 특화된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공급 ④ 활동 분야에서 지역의 인지도
- ⑤ 교통의 편리함 ⑥ 예술가, 활동가 등과의 교류
- ⑦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공간 인프라 ⑧ 유동인구, 지역경제 등 인근 환경
- ⑨ 층수, 면적 등 시설 환경 ⑩ 기타 ()

10. 귀하는 다음의 측면에서 문래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작업하는 창작활동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2) 창작활동 외 일상적인 생활환경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3) 관객을 만나고 작품을 판매하는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4) 예술지역으로서 이미지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는 문래창작촌 입주 후 아래와 같은 심경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변화없음
1) 삶의 질 개선	①	②	③	④	⑤
2) 창작욕구 충족 및 예술적 자극과 동기부여	①	②	③	④	⑤
3) 예술적 성취감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문래창작촌 입주 후 아래와 같은 사회적 관계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변화없음
1) 동료예술가와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2) 주민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3) 기획자, 비평가, 큐레이터와 교류	①	②	③	④	⑤
4) 소공인과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최근 문래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라함	매우 그라함	잘 모르겠음
1) 예술가(공간)가 떠나거나 사라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철공소가 떠나거나 사라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술집, 카페 등 상업적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갤러리, 공방 등 상업적 예술 공간이 늘어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최근 문래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래 항목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영향 없음
1) 예술지역으로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창작활동에 미치는 영향	①	②	③	④	⑤

15. 귀하는 최근 문래동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다음의 항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15-1. 문래동을 떠나는 예술가를 본 적이 있다.

-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있음 ④ 자주 있음

15-2. 문래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 ① 전혀 없음(☞16 아동) ② 없음(☞16 아동) ③ 있음(☞15-2-1 아동)
④ 자주 있음(☞15-2-1 아동)

15-2-1. (15-2 ③, ④ 응답자만 응답) 문래동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술집, 카페 등으로 인한 지역 분위기 변화
- ② 외부방문객 증가로 인한 소음과 어수선한 분위기
- ③ 지가나 임대료 상승
- ④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
- ⑤ 원래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음
- ⑥ 기타 ()

15-2-2. (15-2 ③, ④ 응답자만 응답) 문래동을 떠난다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떠나고 싶은 지역	()
2) 1)이라고 응답한 이유	① 원래 작업을 했던 지역임
	② 지가가 저렴함
	③ 작업하기 적절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
	④ 교류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음
	⑤ 문래동 인근지역이라 낯설지 않고 이동이 편함
	⑥ 특별한 이유 없음
	⑦ 기타 ()

16. 귀하는 문래동 지역 중 어느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변화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변화 없음	약간 변화 있음	변화 많음	매우 변화 많음	잘 모르겠음
문래동1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2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3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4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1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2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3가	①	②	③	④	⑤
문래동4가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는 앞으로 문래동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와 같이 예술지역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다.
- ②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공간이 더 많이 확충돼 다양한 문화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 ③ 예술가와 철공소가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 ④ 지역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 ⑤ 카페, 식당 등 상업공간이 더 늘어나서 방문객들이 더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 ⑥ 지역에 대해 별로 관심 없다.
- ⑦ 기타 ()

18. 문래창작촌 내에서 자주 방문하는 공간을 3개까지 적어주십시오.(카페·식당·작업실·공공 공간·전시실 등 생활과 창작을 위해 방문하는 모든 종류의 공간 포함)

(1) _____ (2) _____ (3) _____

19. 귀하는 다음의 공공시설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19-1. 문래예술공장

- ① 이용한 적 없음 ② 1년에 1~2번 이용 ③ 6개월에 1~2번 이용
 ④ 한달에 1번 이용 ⑤ 한달에 2~3번 이용 ⑥ 일주일에 2~3번 이용
 ⑦ 매일 이용 ⑧ 기타()

19-2. 술술센터

- ① 이용한 적 없음 ② 1년에 1~2번 이용 ③ 6개월에 1~2번 이용
 ④ 한달에 1번 이용 ⑤ 한달에 2~3번 이용 ⑥ 일주일에 2~3번 이용
 ⑦ 매일 이용 ⑧ 기타()

20. 귀하는 다음의 공공시설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긍정적	매우 긍정적	잘 모르겠음
1) 문래예술공장	필요성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2) 술술센터	필요성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①	②	③	④	⑤

20-1. 문래예술공장과 술술센터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이유를 아래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래예술공장	
2) 술술센터	

21. 귀하는 문래창작촌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전시장 및 공연장
 ② 작품 혹은 굿즈 등의 2차 창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
 ③ 예술가들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④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공동작업실(메이커스페이스 등)
 ⑤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동창고
 ⑥ 화장실, 가로등 등 생활편의시설
 ⑦ 지역 안내센터
 ⑧ 예술인을 위한 주거형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공공임대주택 등)
 ⑨ 주차장
 ⑩ 기타 ()

22.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중 주된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해당항목을 우선순위로 네모상자에 숫자로 기입해주시시오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워크숍	<input type="checkbox"/> 대관	<input type="checkbox"/> 작품판매
<input type="checkbox"/> 관람료	<input type="checkbox"/> 식음료판매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상품(굿즈 등)판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	

23. 문래창작촌 입주 후 귀하의 경제적 여건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경제적 변화 관찰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변화 없음
예술작품 판매 증가	①	②	③	④	⑤
지원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낮은 임차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①	②	③	④	⑤
경제적 여건의 전반적 향상	①	②	③	④	⑤

공공지원사업 관련 사항

※ 공공지원사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창작지원, 공간지원, 인력지원, 복지 및 생활지원 등 문화예술활동 자체 또는 활동 지속을 지원하는 사업

24. 귀하의 전체 예술활동에서 공공지원사업을 통한 활동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① 0~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25. 귀하는 최근 5년간 영등포구청, 영등포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등 영등포구 소재 기관의 공공지원사업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6. 귀하의 전체 예술활동에서 영등포구 소재 공공기관의 공공지원사업을 통한 활동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① 0~20% ② 21~40% ③ 41~60% ④ 61~80% ⑤ 81~100%

27. 영등포구 소재 기관의 공공지원사업 중 가장 필요한 공공지원사업은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우선순위로 네모상자에 숫자로 기입해주시시오

<input type="checkbox"/> 창작 지원	<input type="checkbox"/> 공간 지원(레지던시, 작업실 또는 임대료 지원 등)
<input type="checkbox"/> 축제·행사 지원	<input type="checkbox"/> 경제활동 지원(예술가사, 생활문화 매개자 등)
<input type="checkbox"/> 교육 지원(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등)	<input type="checkbox"/> 생활·복지·법률 지원(계약, 회계, 노무 등)
<input type="checkbox"/> 네트워킹 지원	

28. 귀하는 문래창작촌의 창작 및 생활환경 측면에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사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작업실 환경 개선 및 확충
- ② 공공화장실 설치, 가로등 정비, 쓰레기 문제 등 생활환경 개선
- ③ 과도한 상업화로 인한 불균형 해소
- ④ 공연장, 전시장 등 지역 내 문화인프라 확장
- ⑤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 사업 추진
- ⑥ 민관협치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강화
- ⑦ 기타 ()

29. 영등포구 소재 기관의 공공지원사업에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순서대로 3개의 번호를 선택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지원사업 정보 접근성 높이기		
② 활동경력(신진·중견 등)별 지원을 통한 지원유형 다양화		
③ 지원사업의 주제(창작·교육·네트워킹 등) 다양화		
④ 지원금액 확대		
⑤ 지원신청 서류와 과정 간소화		
⑥ 사업 정산 절차 간소화		
⑦ 지역사회·시민 대상 예술활동 홍보 확대		
⑧ 기타 ()		

코로나19 관련

3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공연, 전시 취소 또는 연기
- ② 클래스, 워크숍 취소 또는 연기
- ③ 겸업활동 중단
- ④ 창작활동을 위한 재료 수급의 어려움
- ⑤ 작품 유통(판매)의 어려움
- ⑥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피해
- ⑦ 우울감, 창작욕구 저하 등 정신적 피해
- ⑧ 피해 입은 경험 없음
- ⑨ 기타 ()

31.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떤 대응활동을 했는지 모두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정부 지원금 신청
- ② 공모 지원
- ③ 창작 외 경제활동 증가
- ④ 새로운 형식의 창작활동 및 발표 시도
- ⑤ 심리 상담 치료
- ⑥ 대응 안함
- ⑦ 기타 ()

32-1. 영등포구 내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유형을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긴급재난지원
- ② 창작지원
- ③ 방역지원
- ④ 대출보증지원
- ⑤ 참여한 적 없음
- ⑥ 기타()

32-2. 영등포구 외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유형을 선택해주시시오
(복수응답 가능)

- ① 긴급재난지원 ② 창작지원 ③ 방역지원
④ 대출보증지원 ⑤ 참여한 적 없음 ⑥ 기타()

33.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에 지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원사업 정보 획득의 어려움 ② 복잡한 지원절차 ③ 수혜자격 미충족
④ 불필요 ⑤ 기타 ()

A Basic Research Study for Expanding the Cultural Infrastructure in South-wester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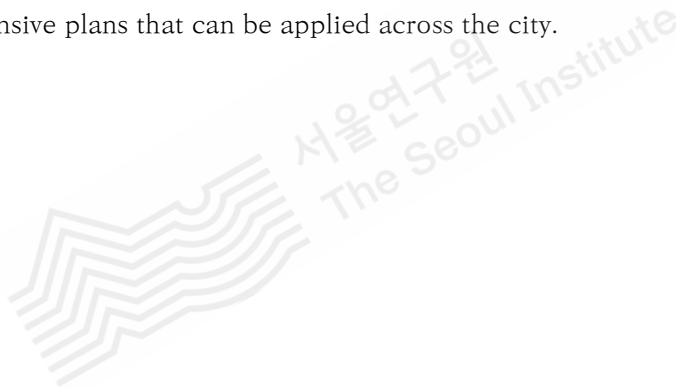
Do-Sam Na · Jung-Hyun Lee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infrastructure in South-western Seoul. On dividing Seoul into five areas, the southwestern area of Seoul includes seven autonomous districts (Gangseo-gu, Gwanak-gu, Guro-gu, Geumcheon-gu, Dongjak-gu, Yangcheon-gu, and Yeongdeungpo-gu) located southwest of the Han River, with a size of 162.46 km² and a population of 2,987,815 as of 2020. Development in this region has been based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even now, most districts in this region are designated as semi-manufacturing areas. Therefore, the cultural infrastructure in South-western Seoul has been relatively less developed compared to the other areas.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 of this study, the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in this region both per person and unit area is much smaller than that in the other regions in Seoul. Furthermore, most of the existing cultural facilities are for daily use, such as 'Small Libraries.' The problem is not a relatively big number of these facilities, but the lack of concert halls, art museums, and museums where a larger number of visitors can perform cultural activities and enjoy art performances. As a result, a strategy to expand cultural facilities and improve the cultural environment of this region should be designed with comprehensive planning. First of all, current plans to expand the cultural infrastructure should be reviewed as they largely focus on already existing small-sized cultural facilities

used on a daily basis.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needs of the region, these plans should be improved to provide what is required.

Cultural facilities needed in South-western Seoul are concert halls, art museums, and museums, which can display the identity of the region. It is essential to take strategic approaches for expansion of these facilities; for example using idle properties and facilities and establishing a cultural ecosystem in the region.

It is true that South-western Seoul is culturally less developed. However, it is a region that has many bases for artists, such as the Mullae Art Village, and a potential to create a new form of digital a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trategy to expand the cultural facilities focus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outh-western Seoul. In addition, as the unbalanced cultural accessibility is not just a problem for this area, it is pivotal to improve the cultural environment and strengthen the cultural ecosystem by developing comprehensive plans that can be applied across the city.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2_Main contents and research methods

02 Concept of cultural facilities and expansion strategy

- 1_Concept and standard of cultural facilities
- 2_Establishment standard of cultural facilities and expansion strategy

03 Current status and features of cultural facilities in South-western Seoul

- 1_Distribution status of cultural facilities in South-western Seoul
- 2_Distribution features of cultural facilities in South-western Seoul

04 Cultural desires of residents of South-western Seoul and Mullae-dong

- 1_Cultural desires of residents of South-western Seoul
- 2_Cultural desires of residents of Mullae-dong

05 Plans and policy directions to expand cultural facilities in South-western Seoul

- 1_Plans to expand cultural facilities in South-western Seoul
- 2_Strategy to expand cultural facilities in South-western Seoul

06 Results and conclusion

- 1_Research results
- 2_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서울 서남권 문화시설 현황과 확충방안

서울연 2022-PR-12

발행인 박형수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767-7 93300 8,000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